

일제시기 김해사립합성학교의 변천과 지역사회의 조응

고나은*

| 국문초록 |

사립합성학교는 1908년 김해 지역 중심지인 김해읍에 설립되었다. 사립각종학교인 합성학교가 1920년 경영난을 이유로 폐교 위기에 몰리자 김해청년회가 이를 인수, 경영하게 되었다. 김해지역 민간교육기관의 필요성에 공감한 지역민의 후원 하에 재정을 확보한 합성학교는 사회적·제도적인 사립학교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1924년부터 재단법인 설립을 시도하였다. 1926년부터 김해교육분규사건으로 진통을 겪었던 합성학교는 1928년 재단법인 인가신청을 했으며 1931년에 이르러서야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곧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 재정난에 부딪힌 합성학교는 1938년 4월 폐교의 수순을 밟았다.

일제시기 김해지역 조선인 교육을 담당했던 합성학교는 김해지역의 근대적 교육 경험과 교육 관행을 지역민에게 내재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선적·민족적·사상적 교육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교육기관이었다. 지역의 교육공간이자 지역 여론 형성의 장으로 기능하였으며 지역민들은 단순히 계몽을 ‘당하는’ 입장이 아닌 조선적·민족적·지역적인 교육을 요구하는 행위의 주체로서 존재하였다. 이러한 합성학교는 사회적 변화와 일제 당국의 압박 속에서 지역사회의 충돌과 균열 및 지역의 항일 감정을 수용하고 또 발현시키는 공간으로 작동하고 동요하였다.

일제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율적 공간을 확보한 채 조선적·민족적 교육을 해나가려는 사립각종학교를 규제하고 체제 내로 포섭하여 주도권을 잡고자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여러 행위 주체들은 이러한 일제의 압력 속에서도 수

* 동아대학교 강사(khye2@naver.com)

동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교육 공간을 매개로 식민지 권력에 대항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존재했으며 지역사회·식민사회 내의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화합하고, 때로는 대립·갈등하면서 사회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 교육과 그 공간은 일제의 많은 탄압을 받아 주변화되거나 식민지 교육체제 내로 더욱 강하게 포섭되어 갔지만 그 속에서도 조선인 주도의 생명력 있는 교육행위는 지속되어 나가고 있었다.

주요어: 사립각종학교, 김해, 사립합성학교, 김해청년회, 지역사회

| 차례 |

1. 머리말
2. 사립합성학교의 설립 및 변천
3. 지역사회 내 합성학교의 역할
4. 합성학교와 지역사회의 동요
5. 맺음말

1. 머리말

개항 이후 새로운 문물이 밀려들고 외세의 압력이 심해지자 조선 사회는 근대적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1905년 일제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을사조약을 통해 조선 침략을 본격화하자 교육을 통한 민중의 각성과 인재 양성이 국권 회복을 위한 급선무임을 깨달은 조선인들은 각종 강연회나 학회를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립학교를 비롯한 각종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일제는 이러한 분위기를 경계하면서 통감부 시기부터 조선의 교육체제를 식민지 교육체제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1906년 각 학교령과

시행규칙의 공포를 통한 법적 체계의 완성이 그것이다. 1908년에는 급증하는 사립학교를 규제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령」을 반포하고 사립학교의 인가제를 실시하였다. 한일병합 이후 일제는 본격적으로 식민지 학교 제도의 개편을 시도했으며 이는 1911년 8월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으로 나타났다. 1911년 10월에는 「사립학교규칙」도 공포하였다.¹⁾ 1915년 3월에는 교과과정과 교원 자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개정 사립학교규칙」도 발표되었다. 이러한 일제 초기 교육 법제와 정책 구상의 기초는 초등 교육·실업교육의 강화와 사립학교의 행정적 관리 및 포섭이었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식민지 교육 정책에 일정 부분 변화를 주었다. 이후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당시의 식민 통치에 맞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였다.²⁾ 개편을 거듭할수록 일제의 식민지 교육 통제는 보다 교묘한 형태로 강화되어 나갔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조선인 교육을 체제에 편입시켜 식민지 교육정책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식민지 조선의 지역민들은 일제의 교육 정책 아래 지역사회에 설립된 관·공립학교, 사립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근대적 교육을 경험하였다. 관·공립학교가 일제의 교육 정책에 편입되어 조선적 교육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던 반면 사립보통학교와 사립각종학교는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관·공립학교에 비해 조선적·민족적 교육³⁾을 펴는 자율적 공간 확보가

1) 일제는 1906년 8월 27일 「보통학교령」, 「고등보통학교령」, 「사범학교령」, 「외국어학교령」과 각각의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학제 개편을 단행했다. 강명숙,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과 학제 개편」, 『한국교육사학』 제31권 제1호, 2009, 10쪽;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17~27쪽.

2) 일제시기 식민지 교육 전반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정리는 강명숙, 「일제시대 교육사 연구의 동향과 쟁점」, 『한국교육사학』 Vol.28 No.1, 2006, 1~23쪽을 참고할 수 있다. 일제 식민지 교육 정책의 비판과 조선의 민족저항적 교육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초기 연구에서 식민지 교육의 식민지적 근대성과 지역의 실증적 사례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는 최근의 연구에 이르기까지의 연구사가 잘 정리되어 있다.

3) 조선적이고 민족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김창제, 「學校選擇問題特輯, 學父兄諸位 各學校卒

용이하였다.⁴⁾ 그중에서도 “학교와 類한 사립의 각종 학교”로 분류되었던 사립각종학교는 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사립보통학교와 달리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제도 밖에 존재했으므로 교육과정이나 교원 자격 등의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⁵⁾ 하지만 식민지 교육 정책의 제도권 내에 포섭되지 있지 않았으므로 제도 내의 학교와 엄격히 구분되어 진학·취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다.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면 사립각종학교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서 지역 유지나 지역 공동체의 출자를 통해 설립·유지되었다. 이러한 지역민의 지원과 호응을 바탕으로 민족적·사상적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상대적 교육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었던 사립각종학교는 일제시기 식민지 교육 정책에 대응해나간 조선인 교육의 실태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사립각종학교를 다룬 관련 연구 성과는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들은 민족운동사의 관점에서 사립각종학교를 살피고 있으나 특정 시기에 한정되어 있거

業生諸君에게 이 號를 囑하노라, 『東光』 18, 1931 중 “朝鮮의 情緒와 感情을 訓育하는데 있어서는 私立學校에 一日之長이 있다고 봅니다. … 私立에도 보내다가 결국에는 부득이 公立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公立으로 간 뒤에 다른 성적은 물론 훨씬 나아졌으나 오직 顯著的 缺點은 朝鮮말을 너무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普通教育은 國語를 중심 國語를 國民教育을 시키는데 있는 바 國語라 함은 즉 일본말을 가르치는 것이요 조선 말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어, 조선역사 등을 가르치는 조선인 교육을 의미한다. 즉 사립각종학교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확보된 민간교육을 행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 4) 장규식·박현옥, 「제2차 조선교육령기 사립 중등학교의 정규학교 승격운동과 식민지 근대의 학교공간」, 『중앙사론』 32집, 2010, 185쪽.
- 5) “사립각종학교는 학교 제도 체계가 성립 정착하는 과정에서 학교 제도상의 지위가 분명하지 않은 학교를 총칭하는 용어로 지칭”되었으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설립하지 않은 학교, 조선교육령으로 정한 학교 제도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립각종학교가 학교 제도 ‘밖’에 존재했다는 것은 “학교 제도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교의 제도화 과정에서 곧 사라질 학교이거나 제도로 편입될 학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土方苑子도 각종학교의 연구에서 ‘제도화되지 않은’ 학교를 중시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157쪽.

나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⁶⁾ 이는 사립각종학교의 연구가 교육구국운동의 일환으로 사립학교가 왕성하게 설립·운영되었던 한말~일제 초기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점, 특정 지역에 한정된 사례연구들이 주를 이루는 점 등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 중 일제 초기 사립학교의 설립과 지역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근대교육사를 구명한 연구가 주목된다. 근대 학교교육의 제도화 과정을 살펴 고 사립보통학교는 물론 사립각종학교의 전체적인 존재 양상을 학교 설립인가 관련 자료의 분석을 통해 조망하고 있는 이 연구를 통해 식민지 교육정책 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립각종학교의 성격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⁷⁾ 다만 교육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태 파악을 넘어 지역사회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담아내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식민지 시기의 교육 전반이나 사립학교의 존재 양상 및 그 성격을 조선인의 교육행위와 식민지 사회의 변화를 통해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연구도 있다.⁸⁾ 이 연구들을 통해 일제시기 초·중등교육 전반을 살펴볼 수 있어 근대 교육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사립학교가 보통학교-지정학교-각종학교로 위계적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검토한 연구는 사립각종학교의 제도적·사회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6) 김영우, 「한말의 사립학교에 관한 연구(I)」, 『교육연구』 1, 1984; 「한말의 사립학교에 관한 연구(II)」, 『교육연구』 3, 1986. 김성준, 「경남 밀양 근대교육의 요람 정진학교 연구」, 『국사관논총』 23, 1991. 김형목, 「사립흥화학교(1898~1911)의 근대교육사상 위치」, 1998; 「한말 충북지방의 사립학교 설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3, 2002; 「을사늑약 이전 경기지방 사립학교의 성격」, 『중앙사론』 26, 2007. 김성학, 「한말 강화지역 사립보통학교의 등장과 성장」, 『한국교육사학』 36권 3호, 2013 등이 있다.

7) 강명숙,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과 학제 개편」, 『한국교육사학』 31-1, 2009; 「1910년대 사립보통학교의 성격 연구」, 『한국교육사학』 33-2, 2011;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8)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박철휘, 『식민지기 한국 중등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미, 「일제하 사립중등학교의 위계적 배치」, 『한국교육사학』 26-2, 2004.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일제시기 사립각종학교에 대한 연구는 양적 부족에 따른 많은 연구 공백이 있다. 제도 전반을 고찰한 선행 연구의 바탕 위에 후속 사례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사립각종학교의 성격을 선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관·공립학교에 비해 지역 공동체의 이해관계와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었던 사립각종학교의 사례 연구는 당시 지역사회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민이 교육적 경험을 통해 성장해나간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공동체가 지역의 학교와 만나고, 활동하고, 때로는 교육을 매개로 갈등하기도 하면서 지역 교육 환경을 형성·발전시켜 나갔던 모습을 보다 역동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08년 설립되었다가 1938년 폐교된 김해지역 사립학교인 김해사립합성학교의 설립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⁹⁾ 이를 통해 근대 사립학교의 제도적 변화와 그에 맞서 적응해나간 사립각종학교의 실제적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경남과 김해지역의 교육에 대해서는 한말 근대교육의 보급과 확산 양상을 파악한 연구,¹⁰⁾ 김해지역 사회단체·청년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교육활동을 살펴보고 합성학교 유지운동에 주목한 연구가 있어 참고가 된다.¹¹⁾ 또 사립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 제도의 변천 양상을 사립중등학교의 정규학교 승격운동을 통해 살펴본 연구가 합성학교의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¹²⁾

9) 한말~일제시기 김해지역에 존재한 사립합성학교는 해방 이후 김해대성국민학교(1945. 09.24.)로 개칭하여 이어졌다가 1956년에 다시 김해합성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의 김해합성초등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김해합성초등학교 홈페이지-학교소개-학교연혁 참고(ghhapseong-p.gne.go.k).

10) 송준식, 「한말 경남지역 근대교육의 보급과 확산」, 『교육사상연구』 27-3, 2013, 213~240쪽.

11) 김승, 「한말·일제하 김해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 2014, 219~288쪽. 송준식, 「1920년대 김해지역 청년단체의 교육활동」, 『교육사상연구』 31-4, 2017, 127~153쪽.

12) 장규식·박현옥, 「제2차 조선교육령기 사립 중등학교의 정규학교 승격운동과 식민지 근

이를 바탕으로 합성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에 주목하여 지역사회 내 합성학교의 역할과 합성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 제시기 김해지역사회의 동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말~1930년대 말 까지 김해 지역사회의 활동 공간이자 교육 경험의 장이었던 합성학교 사례 연구를 통해 주로 한말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사립학교 연구를 보완하고 식민지 정책과 상호작용하며 변화해나가는 사립학교의 모습을 구명할 것이다. 아울러 김해의 중심지였던 김해읍에 위치했던 사립학교이므로 지역사회 내 역동적인 교육 경험 및 활동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사립합성학교의 설립 및 변천

한말 김해지역에서도 유일학교, 함영학교, 향명학교, 생림 조양의숙, 상동 화명학교, 진영 중화학교, 녹산 녹명학교, 활천 일신학교, 명지 동명학교 등 많은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¹³⁾ 김해사립합성학교는 김해군 답곡동(현 대성동)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립함영학교와 유일학교가 통합하여 1909년 4월 10일 김해군 김해읍 북내동(현 서상동)에 설립되었다.¹⁴⁾ 당시

대의 학교공간, 『중앙사론』 32집, 2010, 149~199쪽.

13) 『조선일보』 「김해문화운동 약사」, 1936.08.06. 5면 4단.

14) 합성학교가 위치한 김해읍은 1907년 김해군의 우부·좌부·활천·칠산면에 해당한다. 1914년 면구역이 변경되고 1918년 김해면이 되었다가 1931년 김해읍으로 승격하였다. 1941년 일부 지명이 일본식으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1947년 현재의 동명과 유사한 형태로 정착하였다. 김해군의 중심지였으며 그 중에서도 합성학교가 위치한 북내동(현 서상동)은 일제시기에도 행정중심지로 군청·등기소·금융조합 등이 위치하였다. 1914년 북내동으로 부르다가 1941년 대화정으로 변경, 1947년 서상동으로 개칭하였다. 1981년 시로 승격하면서 회현동에 들어갔다. 이병태, 『김해지리지』 김해문화원, 1991, 73~85쪽. 사립합성학교는 현재의 김해 합성초등학교이며 현 위치는 경남 김해시 서상동 172이다.

합성학교를 통합하여 설립 인가를 얻은 사람은 김해교회 장로 배성두(裴聖斗)와 미국인 선교사 심익순(沈翊舜, W. E. Smith)으로 인가의 명의자는 배성두, 학교장은 심익순이 각각 맡았다. 북내동에 교사(校舍)를 지어 4년제의 고등과와 4년제의 보통과를 설치하였으며 김해 기독교도들의 출연(出捐)으로 운영되었다.¹⁵⁾ 남녀공학이었으며 1910년 당시 직원 4명, 학생 20명, 경비 97,000원의 사립학교였다.¹⁶⁾ 1916년 이후로 배순서(裴順瑞), 김성철(金聲哲)이 학교장을 맡아 학교를 경영했으나 1920년 무렵에는 교회의 세력과 더불어 합성학교의 운영도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 시기의 합성학교는 1908년 공포된 「사립학교령」에 의해 제도 밖의 교육공간인 사립각종학교로 분류된다. 사립학교령에 의거하여 통합 설립된 합성학교는 1911년 「사립학교규칙」에 의해 표준화된 교육과정, 교원 자격, 재정 계획 등 강화된 인가 조건을 토대로 재인가를 받아야했다. 1915년 조선총독부는 다시 「개정 사립학교규칙」이 제정, ‘법령으로 규정된 이외의 교과과정을 덧붙일 수 없다’는 제재를 통해 종교교육을 금지하였다. 이때 종교 계통의 사립학교는 교육의 목적과 학교의 정체성을 잃을 위기에 봉착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 속에서 민족적·사상적 교육을 해오던 많은 사립각종학교들이 사라지거나 제도권 학교로 통합·흡수되어 나갔다.¹⁷⁾ 1910년 경남지역 사립각종학교는 총 99교(종교학교 17, 사립학교

15) 『동아일보』 「순회탐방-경남의 웅읍이오 산업의 중심(2): 가락국의 고도」, 1926.10.30. 4면 3단.

16) 『경남일보』 「도내 각 학교 수」, 1910.11.05. 당시(1910년) 김해지역의 사립학교는 합성, 광동, 조양, 동명, 용연, 일신, 녹명, 중화, 합성의 9개교가 언급되고 있다. 학생 수나 경비의 규모로 보았을 때 사립합성학교는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작은 규모의 사립학교에 속했다.

17) 1910년부터 1922년까지의 사립각종학교 인가 현황을 살펴보면 이 사실을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다. 1910년도의 사립각종학교수는 2,085교였다가 「조선교육령」, 「사립학교규칙」 등을 거치며 학교 수는 급속히 줄어들어 1916년에는 1910년의 절반 수준인 969교만 남게 되었다. 1922년에는 653교로 더욱 줄어든다.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22·1923.

82)였으나 1914년이 되면 총 62교(종교학교 14, 사립학교 48)로 줄어드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다.¹⁸⁾ 당시(1913년) 김해지역의 사립각종학교 수는 사립학교 4개교, 종교학교 1개교만이 남아있었고 1922년에는 그마저도 1개교가 줄어 사립학교 3개교(학생 180명), 종교학교 1개교(학생 369명)가 총독부 조사에 집계되었다.¹⁹⁾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 계열의 사립학교였던 합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1920년 무렵이 되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부족으로 결국 폐교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 일시 휴교하였다.

3·1운동 이후 실력양성론에 입각한 문화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영향을 받아 당시 김해사회에도 역시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생겨났다.²⁰⁾ 1920년대에 김해에서 설립, 활동한 사회단체들은 현재 확인되는 단체만 70여 단체가 있었는데 그 중 설립시기가 빠르고 지역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단체 중 하나는 김해청년회였다.²¹⁾ 1920년 1월에 단체를 색신한 김해청년회는 사립합성학교가 재정난에 빠져 폐교 위기에 처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 해 4월 청년회원들의 주도로 합성학교유지회를 조직해 학교의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넘겨받았다.²²⁾ 이때 학교유지실행위

18)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09, 238~239쪽. 경상남도청, 『경상남도안내』, 1914, 20쪽.

19) 朝鮮總督府慶尙南道, 『慶尙南道 道勢要覽 : 大正2年』, 1913년, 164쪽. 慶尙南道廳, 『道勢一班 : 大正11年度』, 1922, 22~24쪽. 1926년이 되면 김해의 사립학교는 2개소만이 남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순회탐방-경남의 웅읍이오 산업의 중심(2): 가락국의 고도」, 1926.10.30. 4면 3단.

20) 김승, 「한말·일제하 김해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 2014, 237쪽.

21) 김해청년회는 1911년 김해청년구락원(운동구락부)으로 결성되었다가 1920년 1월 김해청년회로 개편하고 새롭게 출발하였다. 김해청년회는 김해여자야학회, 사립합성학교 인수·경영했으며 김해교육회, 김해체육회, 김해소년회, 진영청년회, 진영강습소, 광진학교, 부인야학 등 당시 김해의 사회단체 및 사회활동들과 깊은 관련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펼친 김해의 중요한 청년단체이다. 송준식, 「1920년대 김해지역 청년단체의 교육 활동」, 『교육사상연구』 31-4, 2017, 129~136쪽.

22) 『동아일보』 「김해청년분발」, 1920.04.19. 4면 3단.

원장은 배종철(裴鍾哲)이었으며 9명의 위원과 4명의 고문장이 선출되었다.²³⁾ 회원의 재력에 따라 각자 매월 50전에서 30원까지 월연금(月捐金)을 부담하여 매월 300원 이상의 수익금으로 학교를 우선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교실을 수리하고 교구와 도서를 구입했다.

일련의 준비를 마친 후 같은 해 5월 10일 개교식을 거행하였는데 당시 재학생만 80여 명에 달했으며 매일 10여 명씩 지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²⁴⁾ 이후 교사 3명을 초빙하여 140여 명의 학생을 가르쳤다.²⁵⁾ 하지만 회원의 각출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합성학교유지회는 유지실행위원 10명을 선출하여 학교기본재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때 이들의 취지에 공감한 김해농업계에서 정조(正租) 250석 수확의 토지(시가 5~6만 원 상당) 75%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성학교의 기본 재원으로 김해청년회에 양여하면서 합성학교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²⁶⁾

이러한 김해청년회의 노력과 김해사회에 팽배한 교육열은 합성학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김해군 전체의 600여 지역인사들은 합성학교의 유지에서 더 나아가 고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김해사립고등보통학교의 설립에 뜻을 모아 1920년 9월 6일 김해흥학계(興學契)를 창립하였다.²⁷⁾ 이때 김해흥학계에 참여한 지역 유지들의 기부가 이어졌다. 허발

23) 위원은 김성철(金聲哲), 배병진(裴秉震), 인동철(印東哲), 배덕수(裴德秀), 배창환(裴昌煥), 박태신(朴泰呻), 임학찬(任學讚), 이원(李園), 배신환(裴信煥)이었으며 고문장은 배인환(裴仁煥), 박성수(朴盛秀), 구목회(具睦會), 박석권(朴錫權)이었다. 『매일신보』 「各支分局通信欄: 김해 合成學校 확장」, 1920.05.03. 4면 3단.

24) 『매일신보』 「各支分局通信欄: 金海合成校 開校, 校舍 狹小로 수용치 못한 학생 다수」, 1920.05.14. 4면 3단.

25) 『동아일보』 「합성학교 유지회」, 1920.07.03. 4면 3단.

26) 『동아일보』 「문제중첩한... 합성교의 유래(상)」, 1926.09.22. 4면 4단.

27) 김해흥학계 창설 당시의 회원수가 1,600명이라는 보도도 있어 회원 수가 상이하다. 하지만 김해군 전체에서 교육사업의 발전에 힘쓰고자 하는 열의를 아는 데는 충분하리라 여겨진다. 『조선일보』 「지방산업소개-김해교육회」, 1926.01.06. 4면 1단. 『동아일보』

5만 원, 박석권 2만 5천 원, 김일정 1만 원, 김덕재 5천 원, 박성수 4,500 원, 박수하 3천 원, 배동화 1,500원 등의 기부로 20만 원 이상의 재원을 얻게 된 김해흥학계는 같은 해 11월 23일 합성학교유지회를 인수하였다. 이듬해 3월 21일 김해교육회로 개칭, 전 설립자 배성두 씨의 명의를 취소하고 허발, 김덕재, 박석권, 배인환, 김일정을 설립자로 하여 합성학교의 경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때 명예교장은 허발이었다.²⁸⁾

1922년부터는 건평 116평에 32,000원을 들여 2층 벽돌양옥의 교사(校舍)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²⁹⁾ 이듬해 1923년 3월 완공되었다. 완공과 함께 합성학교는 고등과를 확대 실시하였다. 1925년에는 명예교장의 직함을 없애고 실무교장으로 양화석(梁華錫)이 취임하였고 이어서 1926년에는 윤교중(尹敎重)이 교장이 되었다.³⁰⁾ 이 시기 합성학교는 6학급 학생 400여 명, 연경비 8,000원의 규모였으며 학교 경영에 힘썼던 김해교육회의 임원은 회장 허발, 총무 박석권, 회계 배수환 외 8명이었다.³¹⁾

사립합성학교가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던 이 시기에 조선총독부는 「제2차 조선교육령」(1922.02.)을 공포하고 공·사립의 학교 체제를 법제화하여

「순회탐방 123 - 경남의 웅읍이오 산업의 중심 <3>」, 1926.10.31. 4면 2단.

28) 『동아일보』「순회탐방-경남의 웅읍이오 산업의 중심(2): 가락국의 고도」, 1926.10.30. 4면 3단.

29) 기존에 합성학교를 다룬 연구에서는 『동아일보』「문제중첩한... 합성교의 유래(상)」, 1926.09.22. 4면 4단의 기사를 근거로 4만 원으로 220평에 학교 건물을 지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동아일보』「김해고보 건축기공」, 1922.09.07. 4면 3단., 『조선일보』「지방산업소개-김해교육회」, 1926.01.06. 4면 1단., 『동아일보』「순회탐방-경남의 웅읍이오 산업의 중심(2): 가락국의 고도」, 1926.10.30. 4면 3단., 『동아일보』「순회탐방 123 - 경남의 웅읍이오 산업의 중심 <3>」, 1926.10.31. 4면 2단 등 다수의 기사에서 건평은 116평(혹은 120평), 건축비는 32,000원(혹은 28,400원)이었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뒤에 제시한 기사가 보다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30) 『조선신문』「賀正, 사립합성학교」, 1926.01.06. 4면 7단; 「祝 博覽會 成功」, 1926.07.21. 5면 4단. 1929년에는 최철악이 합성학교 교장이었다. 『조선시보』「合成學校昇格陳情」, 1929.06.06. 5면 9단.

31) 『동아일보』「문제중첩한... 합성교의 유래(하)」, 1926.09.23. 4면 4단. 『조선일보』「지방산업소개-김해교육회」, 1926.01.06. 4면 1단.

사립학교에 투영된 민간의 교육열을 공립학교로 포섭하려 하였다.³²⁾ 반면 정규학교에 준하는 지정학교의 형태로 제도 내에 포섭되지 않은 여타의 사립각종학교들은 학령불인정이라는 일제의 조치 아래 취업과 진학의 기회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개정 사립학교규칙」(1915)으로 상향된 사립 교원의 자격조건 등 여러 규제, 일정 학력을 요구하는 근대적 유망 직종들의 등장 등 여러 사회적·정책적 변화들이 1920년대에 일상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사립학교들은 공립학교 혹은 사립지정학교로의 승격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립합성학교는 1924년에는 도당국에 4년제에서 6년제로 학칙 변경 신청을 하고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한 수속을 밟고자 하였다.³³⁾ 이는 재정의 안정이 보장된 재단법인 여부가 정규학교인 사립고등보통학교 인가 방침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다.³⁴⁾ 김해사립고등보통학교의 설립은 김해교육회의 최종 목적이기도 했으므로 합성학교 관계자들이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갔던 것이다. 하지만 재정문제로 인하여 고등보통학교의 신설은 결국 유예되고 재단법인 사립합성학교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는 결의가 이루어져 이를 지원할 학부형회가 조직되는 등 제반 준비가 이루어져 나갔다.³⁵⁾ 그러던 중 1926년 3월 이후 김해교육회와 김

32) 공·사립체제의 확립은 1925년에 이르러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장규식·박현옥, 「제2차 조선교육령기 사립 중등학교의 정규학교 승격운동과 식민지 근대의 학교공간」, 『중앙사론』 32집, 2010, 168쪽.

33) 사립각종학교의 경우 수업연한은 주로 4년(혹은 3년)이었다. 1920년 보통학교규칙 개정을 통해 6년제 보통학교가 생겼으며 합성학교는 이 법령에 의거 6년제 학제 개편 신청 및 재단법인 인가 준비를 해나갔다.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182쪽.

34) ①설립자는 그 학교를 설립 유지하기에 족한 재산을 가진 재단법인인 것, ②교지 및 교사 기타의 설비는 교육에 필요한 상당한 시설을 할 것, ③경상비는 10학급 편제시 약 4만 4천 원, 5학급 편제시 약 2만 8천 원을 최저한도로 확보할 것 등의 엄격한 인가방침이 발표되었다. 『동아일보』 「사립고보 인가방침」, 1922.01.25. 사립지정학교로의 승격에도 비슷한 요건의 구비가 필요했으나 재단법인 설립이 필수조건은 아니었다. 장규식·박현옥, 「제2차 조선교육령기 사립 중등학교의 정규학교 승격운동과 식민지 근대의 학교공간」, 『중앙사론』 32집, 2010, 176쪽.

35) 『조선일보』 「공기강장한 김해교육회 총회」, 1925.03.16. 4면 1단. 『조선일보』 「합성교부회(父兄會)」, 1925.06.09. 1면 7단. 『동아일보』 「학부형회 창립-김해사립합성학교」,

해공립농업학교 기성회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1년여간의 김해지역사회가 진통을 겪게 되었던 김해교육분규사건이 일어났다.³⁶⁾

1927년 2월 이 사건이 겨우 마무리되자 합성학교의 경영 당국자인 허발, 박석권, 배종철 등은 학교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사립보통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³⁷⁾ 1928년 8월에는 재단법인 인가신청을 경남도청에 제출하였으나,³⁸⁾ 1931년 3월 20일이 되어서야 법인 설립 허가가 이루어졌다.³⁹⁾ 일제 당국이 '가급적 노력하여 속성을 기 하겠다', '불원(不遠)간 허가되도록 하여주겠다'며 인가를 미루다가 합성학교 측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시도한지는 8년, 정식으로 인가 신청을 한지는 4년 만에 겨우 설립 허가가 받아들여진 것이었다.⁴⁰⁾ 이로써 사립합성학교는 사립각종학교에서 김해사립합성보통학교로 승격하게 되었다.⁴¹⁾

하지만 정규학교로 승격된 지 1년이 지난 1932년 합성학교는 재정난에 부딪혔다. 합성학교에 많은 정성과 지원을 쏟았던 김해의 유지 허발이 사망한 후 계속된 경영 곤란을 겪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학교의 유일한 기본

1925.06.09. 3면 4단.

36) 선행연구에서는 합성학교 유지운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 표현에는 합성학교를 유지하려고 했던 교육회만이 행위 주체로 부각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교육회와 기성회 양쪽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당시의 언론 보도에도 사용되었던 '김해교육분규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37) 『동아일보』「법인으로 승격 될」, 1927.02.22. 5면 6단. 『조선일보』「김해합성학교를 재단법인으로」, 1927.02.23. 2면 4단.

38) 재단법인은 이미 설립하였으나 허가신청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학제도 4년제에서 6년제로 승급해달라고 진정을 하고 있다. 1924년부터 요청했던 학칙의 변경이 이 시기 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동아일보』「학년 연장 진정」, 1928.08.06. 4면 4단.

39) 1927년 최초 신청한 이후 1930년까지 경남도당국은 법인 허가를 계속 미루고 있다가 1931년에 겨우 인가가 이루어졌다. 『동아일보』「김해합성학교 재단법인 신청」, 1928.12.06. 4면 1단. 『동아일보』「합성학교 학예회」, 1929.02.25. 4면 10단.

40) 『동아일보』「학년 연장 진정」, 1928.08.06. 4면 4단. 『조선일보』「경남교육계에서 증진인 김해사립합성교」, 1929.06.17. 4면 3단. -재단법인 관련.

41) 『조선일보』「경남교육계에서 증진인 김해사립합성교」, 1929.06.17. 4면 3단. 『동아일보』「김해합성교 보교로 승격」, 1931.03.29.

재산인 김해농업계 양여의 토지를 경매로 매각하였는데 이로 인해 학교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였다는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⁴²⁾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허발의 아들 허만용에게 토지 약 50만 여 평(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출연금을 제공받기도 했다.⁴³⁾

하지만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과 사립학교 및 초등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관심이 맞물리면서 합성학교의 경영난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았다. 당시 김해의 미취학아동수가 8,300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수적인 사립학교에 대한 지역민의 방관이 이어지자 이를 우려하면서 독지가나 지역 유지들의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⁴⁴⁾ 하지만 재정난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김해의 유일한 사설교육기관으로 남아있었던 합성학교는 1938년 4월 폐교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⁴⁵⁾

3. 지역사회 내 합성학교의 역할

한말~일제초기 사립학교는 대체적으로 지역민들의 출자나 지역 유지들의 기금 조성, 지역사회 공동 재산의 인계·양여 등을 통해 설립·유지되었다. 사립보통학교나 각종학교가 개인 경영의 사적인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의 교육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공공성을 담보한 교육 기관의 성격을 띠고

42) 『동아일보』「김해사립합성보교 재단기초가 위태」, 1932.09.27. 3면 1단; 「법인이사회의 불성실 비난」, 1932.09.27. 3면 1단.

43) 『동아일보』「김해합성보교 기초 재차 확립」, 1932.10.09. 3면 8단. 『동아일보』「선친의 유지를 봉행 합성교에 2만 원 제공」, 1933.06.10. 3면 4단.

44) 『조선일보』「합성학교 경영난 대책 수립이 급무」, 1936.08.06. 4면 6단. 『조선일보』「초등교육은 기근, 사학계는 소조낙막」, 1936.08.06. 1936.08.06. 4면 4단. 『조선일보』「독지가 출현 기대」, 1936.08.06. 4면 8단.

45) 『동아일보』「30년의 역사 깊은 김해 합성교 비운」, 1938.03.01. 6면 8단. 『동아일보』「합성교 재산처분에 이사간 의견 백출」, 1938.06.29. 3면 1단.

있었던 것이다.⁴⁶⁾ 특히 사립각종학교의 경우 지역의 근대적 교육 경험과 교육 관행을 지역민에게 내재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족적·사상적·지역적 교육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교육 공간이었다.

초기 민족적·종교적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던 사립합성학교는 1920년 폐교의 위기를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극복하고 사립각종학교로 탈바꿈하였다. 지역 공동체의 재정적 지원과 지역 유지의 보조, 지역 내 지식인의 참여와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합성학교는 지역사회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역 교육 공동체이자 지역 여론 형성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1931년 합성학교가 재단법인으로 변경, 사립보통학교 인가를 받음으로써 식민지 교육제도 내의 정규학교로 승격하고 1938년 사실상의 폐교 수순을 밟는 과정은 식민지 교육 체계의 지역사회 재편성 과정과도 조응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설립부터 폐교까지 합성학교라는 일제시기의 사립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조선인 교육의 장으로 위치하고, 사회적·민족적·지역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교육공간을 통해 지역사회의 여러 움직임·화합·갈등·발전 등-을 투영해볼 수 있다.

1) 사회단체 활동 공간

1920년대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각 사회 도처에서 일어났다. 김해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민족적·사상적 기초를 가진 많은 사회단체들이 생겨나 지역사회, 계급사회, 나아가 조선인 사회를 계몽하고 변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여기서는 이 시기 합성학교를 사회운동 공간의 하나로 삼았던 김해읍 주변 사회단체의 활동 내역을 통해 김해지역사회 내 합성학교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46)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157~168쪽.

〈표 1〉 사회단체 총회 및 정기행사

	행사명	개최 날짜	주최	자료출처
1	김해청년회 임시총회	1920.05.28. 20시 반	김해청년회	『매일신보』, 1920.06.06.
2	김해청년회 제7회 정기총회	1922.01.21. 19시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2.01.28.
3	김해여자한빛회 제2회 정기총회	1922.06.10. 20시	김해여자한빛회	『동아일보』, 1922.06.17.
4	김해교육회 임원회	1922.07.05.	김해교육회	『동아일보』, 1922.07.15.
5	김해여자청년회 총회	1922.11.25. 20시	김해여자청년회	『동아일보』, 1922.12.03.
6	김해청년회 총회	1923.07.22. 15시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3.08.03.
7	김해교육회 임시총회	1924.01.06.	김해교육회	『동아일보』, 1924.01.12.
8	김해청년회 제14회 정기총회	1925.02.22. 15시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5.02.26.
9	김해노농연합회 제2회 정기총회	1925.03.08. 10시	김해노농연합회	『조선일보』, 1925.03.08.
10	김해신진여자회 창립총회	1925.04.02. 14시	김해신진여자회	『조선일보』, 1925.04.15.
11	김해토요회 정기총회	1925.06.27. 15시	김해토요회	『조선일보』, 1925.07.03.
12	재외유학생 간담회 (초대회)	1925.08.13. 12시	김해청년회, 김해여자청년회	『조선일보』, 1925.08.16.~17. 『동아일보』, 1925.08.18.
13	김해노농연합회 제3회 정기총회	1925.10.17. 13시	김해노농연합회	『조선일보』, 1925.10.21.
14	김해청년연맹 발기회	1925.11.08. 10시	김해청년연맹	『조선일보』, 1925.11.12.
15	김해청년회 임시총회	1925.11.20.	김해청년회	『조선일보』, 1925.11.23.
16	김해청년회 정기총회	1925.12.24. 16시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6.01.09.

	행사명	개최 날짜	주최	자료출처
17	김해청년회 집행위원회	1926.02.18.	김해청년회	『조선일보』, 1926.02.28.
18	김해체육회 창립총회	1926.03.05.	김해, 박정곤, 박석권	『조선일보』, 1926.03.15.
19	김해토요회 통상회	1926.07.03.	김해토요회	『조선일보』 1926.07.21.
20	제17회 김해청년회 정기총회	1926.07.10. 16시 반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6.8.07.
21	제3회 재외김해유학생 초대회	1926.08.15. 10시	김해청년회	『조선일보』, 1926.08.04. 『동아일보』, 1926.08.21.
22	김해청년회 임시총회	1926.11.27. /12.06. 2시	김해체육회, 남릉회, 재금단, 예술구락부, 새빛단	『조선일보』, 1926.12.08. 『동아일보』, 1926.12.13.
23	김해소년회 임시총회	1926.12.12. 11시	김해소년회	『동아일보』, 1926.12.20.
24	김해청년회 제18회 정기총회	1927.02.20. 14시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7.02.24.
25	김해여자한빛회 제7회 정기총회	1927.02.27. 20시	김해여자한빛회	『동아일보』, 1927.03.03.
26	김해청년회 제19회 정기총회	1927.07.31. 15시 반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7.08.03.
27	김해사립합성학교 동창회 제2회 정기총회	1927.08.15. 13시	김해사립합성학교 동창회	『동아일보』, 1927.08.19.
28	김해유학생회 창립총회	1927.08.20. 17시	김해청년회, 재외김해유학생 초대회, 재일본동경유학생 구락부	『동아일보』, 1927.08.23.
29	김해청년연맹 제2회 임시총회	1927.08.20. 13시	김해청년연맹	『동아일보』, 1927.08.25.
30	김해교육회 제8회 정기총회	1928.04.18. 14시	김해교육회	『동아일보』, 1928.04.23. 『조선일보』, 1928.04.24.
31	재외김해유학생 초대회 (환영회)	1928.08.15. 10시	김해청년동맹	『동아일보』, 1928.07.29.

	행사명	개최 날짜	주최	자료출처
32	재외유학생회 제2회 정기총회	1928.08.11. 13시	재외유학생회	『동아일보』, 1928.08.16.
33	김해야학협회 창립총회	1928.08.17. 14시	신간회 김해지회	『동아일보』, 1928.08.22.
34	김해여자야학회 임시총회	1928.12.20.	김해여자야학회, 근우회 김해지회	『동아일보』, 1928.12.27.
35	재외김해유학생 정기총회	1929.08.15.	재외김해유학생회	『조선일보』, 1929.08.16.
36	재외김해유학생 초대회 (환영회)	1929.08.15. 14시	김해청년동맹	『동아일보』, 1929.08.07., 08.21.
37	김해여자친목회	1935.08.22.	김해여자친목회	『조선일보』, 1935.08.26.

* 행사명은 신문기사 내 명칭을 가능한 한 그대로 명시하였다.

* 자료의 출처는 『신문명』, 발행년월일만을 기재하였다.

〈표 1〉은 김해지역 여러 사회단체가 합성학교를 무대로 활동한 내역이다. 합성학교를 사회단체 활동 공간, 특히 정기총회 및 정기행사 공간으로 활용한 경우를 정리하였다.⁴⁷⁾ 합성학교에서 정기총회 등 일련의 의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김해청년회, 김해여자청년회, 김해교육회, 김해토요회, 김해노농연합회, 김해청년연맹, 재외김해유학생회, 김해소년회, 김해체육회, 김해신진여자회, 김해여자한빛회, 김해여자친목회 등이 있었다. 대체로 김해청년회와 관련이 있는 단체들-김해교육회, 김해청년연맹, 김해소년회, 김해체육회 등-이 많았으며 단체의 집행위원 등 임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최원호나 배종철, 인동철 등은 김해청년회는 물론 김해교육회나 그밖의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강연회의 연사로 활동하고 있다.⁴⁸⁾ 김해청년회 자체도 재외김해유학생회나 그 밖의 여러 단체의 활동

47) 이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우선 여력이 닿는 한도 내에서 정리해보았다. 이어지는 합성학교 내 활동내역들도 이와 같다.

48) 김해청년회 활동가들의 이력은 김승, 「한말·일제하 김해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을 주선하거나 행사의 주최·후원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1926년에는 김해체육회, 납릉회, 재금단, 예술구락부, 셋빛단의 5개 청년단체가 해산, 김해청년회에 입회하였다. 이들의 입회에 따른 경과보고 및 재편을 위해 합성학교 내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⁴⁹⁾ 지역사회단체의 이합집산과 강령의 결의, 목적의 설정 및 활동의 보고가 합성학교라는 지역 공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사회운동의 단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합성학교를 활동 공간으로 삼은 대부분의 사회단체들은 김해청년회와 그 성격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⁵⁰⁾ 김해지역의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계몽운동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현안에 뛰어들어 활동했던 김해청년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단발성이 아닌 정기총회나 정기행사를 합성학교에서 개최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합성학교가 김해청년회나 그 밖의 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지역사회 교육 공간

김해지역의 사회단체들은 강연회나 강습회를 개최하여 사회·민중계몽이나 사회적 이념 실현을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목록은 모두 합성학교에서 개최된 강연회 및 강습회들이다.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 2014, 256~258쪽.

49) 『조선일보』 「5단체 풀어서 청년회에 가입」, 1926.12.08. 『동아일보』 「청년운동의 통일」, 1926.12.13. 4면 6단.

50) 김해청년회는 1919년 3·1운동 이후 실력양성론에 입각한 문화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개편되어 김해지역의 사회·문화·청년운동을 이끌었다. 1920년대 초 김해청년회는 식민지 당국과 직접적으로 마찰을 빚지 않는 선에서 유산자와 무산자들의 단결을 통해 교육·문화를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계몽적 성격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그밖에 김해청년회의 활동 및 성격에 대한 부분은 김승, 「한말·일제하 김해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 2014, 237~243쪽 참고.

〈표 2〉 강연회 및 강습회

	행사명	개최 날짜	주최	자료출처
1	동경학우회 강연	1920.07.11. 14시 반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0.07.01., 07.13, 07.20.
2	김해여자청년회 임시강연회	1922.07.04. 20시	김해여자청년회	『동아일보』, 1922.07.14.
3	김해청년회 강연회	1923.07.04.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3.07.12.
4	북성회 강연단	1923.08.10. ~11.	김해청년회, 김해여자청년회, 형평사 김해분사	『동아일보』, 1923.08.18.
5	김해여자야학회 제4회 졸업식	1924.06.30. 21시	김해청년회, 김해여자야학회	『동아일보』, 1924.07.05.
6	보천교 성도 강연회	1925.02.07. 14시	김해청년회	『조선일보』, 1925.02.06. 『동아일보』, 1925.02.09., 02.11.
7	김해청년회 대강연회	1925.02.28. 20시	김해청년회	『조선일보』, 1925.03.05.
8	김해신진여자회 강연회	1925.05.09. 15시	김해신진여자회	『조선일보』, 1925.05.14.
9	김해여자야학회 제5회 졸업식	1925.07.10. 21시	김해청년회, 김해여자야학회	『동아일보』, 1925.07.13. 『조선일보』, 1925.07.23.
10	조선어대강습회	1925.08.10. ~28.	김해토요회, 김해교육회 주최/ 동아·조선 김해지국 후원	『조선일보』, 1925.08.11. 『동아일보』, 1925.09.02.
11	여자통속강연회	1926.02.28. 19시 반	김해토요회	『동아일보』, 1926.02.28.
12	제1회 하기여자강습회	1926.07.22. ~30.	김해토요회 주최/ 동아·조선일보 김해지국 후원	『조선일보』, 1926.07.11.
13	김해여자야학회 제7회 졸업식	1927.03.22.	김해청년회, 김해여자야학회	『조선일보』, 1927.03.27.

	행사명	개최 날짜	주최	자료출처
14	여성해방강연회	1927.05.29.	김해여자청년회	『동아일보』, 1927.06.01.
15	하기부인강습회	1927.08.01. ~14.	김해여자청년회	『동아일보』, 1927.07.22.
16	동경유학생학우회 순회강연회	1927.07.18. 20시 반	김해청년회, 김해농민연맹, 김해여자청년회 주최/ 동아·중외일보 김해지국 후원	『동아일보』, 1927.07.22.
17	김해유학생구락부 순회강연회	1927.08.16. 21시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7.08.20.
18	김해여자야학회 제8회 졸업식	1928.03.24.	김해청년동맹, 김해여자야학회	『동아일보』, 1928.03.28.
19	하기상식대강좌	1928.07.22. ~	신간회 김해지회	『동아일보』 1928.06.26.
20	김해여자야학회 제9회 졸업식	1929.03.23. 20시	근우회 김해지회, 김해여자야학회	『동아일보』, 1929.03.21.
21	하기한글대강좌	1929.09.01. ~07.	동아일보 김해지국	『동아일보』, 1929.07.14., 08.30.
22	김해부인재봉 강습회	1933.05.05. ~11.	동아일보 경남지국 주최/ 쌍거미상회사 후원	『동아일보』, 1933.05.16.
23	염색·세탁법 강습회	1934.05.02. ~03.	동아일보 김해지국	『동아일보』, 1934.04.28.

* 행사명은 신문기사 내 명칭을 가능한 한 그대로 명시하였다.

* 자료의 출처는 『신문명』, 발행년월일만을 기재하였다.

1923년 7월 이전의 동경학우회 강연이나 김해청년회 강연회를 보면 연제가 ‘가정교육’, ‘사회력과 개인의 활동’, ‘사회와 교육’, ‘현 제도의 사람 낭비’ 등 사회 계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①, ③).⁵¹⁾ 그에 비해 1923년 8월 10일 북성회가 김해청년회의 후원 하에 김해에서 개최한 강연의 연제는 사회 계몽적 주제를 비롯하여 ‘농민운동의 의의’, ‘무

51) 『동아일보』 「천오백의 청중 김해의 성황」, 1920.07.13. 3면 11단.

산청년에 고함' 등 사회주의적 색채가 드러나는 것들이었다(〈표 2〉-④).⁵²⁾ 이 시기 김해에 유입된 사회주의 사상은 사회·청년단체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김해청년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1925년이 되면 김해청년회도 사회단체 협의체인 사회사정비판회에 참여하여 15개 사회단체의 연합인 김해청년연맹을 결성하게 된다.

김해청년회를 비롯한 7개의 단체들은 조선일보 김해지국의 후원 하에 1925년 친일적 행보를 보이는 보천교를 성토하는 강연회를 열기도 하였다(〈표 2〉-⑥). '보천교도의 맹종은 멸망에 이른다', '가경할 흠치교의 죄상', '보천교는 자멸의 적굴', '장발기구차천자의 말로' 등 강한 어조의 연제로 강연회가 개최되었으며 연사는 최원호, 인동철, 배창현, 박종원 등 김해청년회의 활동가들이었다.⁵³⁾ 일본인 경관이 참석하여 강연회를 감시하고 보천교박멸회 조직 움직임을 차단하는 등 많은 위협과 방해를 가했지만 합성 학교에 모인 김해지역민들은 민족적 정서를 숨기지 않았다.

김해지역사회에서는 여성 계몽과 교육을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25년 4월 남녀평등의 신사회 건설을 강령으로 걸고 창립한 김해신진여자회는 남녀평등을 연제로 강연회를 진행하였다.⁵⁴⁾ 김해여자청년회는 1927년 5월 여성해방강연회를 열기도 했으며 빈대약과 모기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양 강습을 위해 하기부인강습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⁵⁵⁾ 1933~34년에는 동아일보 김해지국이 합성보통학교에서 재봉강습 및 염색법·세탁법 강습회를 개강하여 부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표 2〉-⑧, ⑪, ⑫, ⑭, ⑮, ㉒, ㉓).⁵⁶⁾

52) 『동아일보』「김해에 북성강연 연사 무비중지」, 1923.08.18. 4면 2단.

53) 『조선일보』「김해에서도 흠치성토」, 1925.02.06. 1면 5단.

54) 『조선일보』「신진여자회」, 1925.04.15. 1면 8단. 『조선일보』「신진여자강연」, 1925.05.14. 1면 8단.

55) 『동아일보』「김해여자강연회」, 1927.06.01. 3면 3단. 『동아일보』「빈대약과 모기약」, 1927.07.22. 3면 1단.

56) 『동아일보』「염색세탁 강습 김해지국 주최로」, 1934.04.28. 3면 4단.

김해군의 각 공립학교 교원 및 각 강습회 강사로 조직된 김해토요회에서는 조선어 연구를 결의하고 김해교육회의 주최 하에 1925년 8월, 18일간 조선어강습회를 개최하였다(〈표 2〉-⑩).⁵⁷⁾ 1929년에는 동아일보 김해지국이 7월에 하기 김해한글강좌를 열고자 했으나 경남도당국의 허가 지체로 9월에 개강을 하는 일도 있었다(〈표 2〉-⑪).⁵⁸⁾ 합성학교라는 교육 공간이 김해지역민의 교양 함양과 계몽의 공간으로 작용한 것은 물론 조선적·민족적인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도 기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합성학교 교사를 빌려 쓰고 있었던 김해여자야학회의 각종 행사도 합성학교에서 열렸다. 김해청년회의 경영으로 1920년부터 수업을 시작한 김해여자야학회는 1924년부터는 합성학교의 강당이나 교실을 빌려 수업 및 각종 행사를 해나간 것으로 보인다.⁵⁹⁾ 특히 매년 오후 9시에 열린 야학회의 졸업식은 제도권 밖의 학교가 조선인의 교육열을 포섭하여 생명력 있게 운영되는 모습을 드러낸다. 아울러 합성학교라는 조선인의 교육 공간이 의미있게 활용·유지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사회 문화·체육 공간

김해지역 사회단체들의 사회운동과 계몽활동은 단체 내의 의사결정 활동이나 지식인으로부터 지역민으로 향하는 하향식의 교육만을 지역운동의

57) 『조선일보』「토요회총회 조선어연구 결의」, 1925.07.03. 1면 7단. 『조선일보』「조선어 대강습회」, 1925.08.11.

58) 『동아일보』「김해한글강좌 개강일자 박두」, 1929.07.14. 4면 7단. 『동아일보』「김해한글강좌 새로이 개최」, 1929.08.30. 4면 3단.

59) 『동아일보』「金海女子夜學卒業」, 1922.07.09. 4면 4단. 이때의 졸업식이 2회 졸업식인 것으로 보아 1920년부터 수업을 시작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표 2〉의 ⑤ 기사에서부터 합성학교에서 졸업식을 거행한 기사가 나오는 것(이전에는 김해청년회관을 이용)을 통해 볼 때 이 시기 즈음부터 합성학교라는 공간을 지역민들의 야학 교육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의 변천과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초반의 갈등상황은 4장 3절 참조.

방식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합성학교라는 사립학교를 매개로 각 사회단체들은 지역민의 문화적 계몽과 지역 내·지역 간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를 다채롭게 실시하였다.

〈표 3〉 문화행사

	행사명	개최 날짜	주최	자료출처
1	학예품 전람회	1917.12.20. ~21.	사립합성학교	『매일신보』, 1917.12.29.
2	활동사진 영상회	1924.06.13. 20시	김해청년회 활동사진대	『시대일보』, 1924.06.20.
3	김해음악회	1923.08.13. 20시 반	김해청년회 여자야학부 주최/ 김해여자청년회 후원	『동아일보』, 1923.08.18.
4	기근구제음악회	1924.12.08. 19시 반	김해청년회 외 9단체 주최/ 동아·시대일보 김해지국 후원	『시대일보』 1924.12.15.
5	김해소년옹변대회	1925.01.01. 12시	김해남릉회 주최/ 동아일보 지국 외 3개 단체 후원	『동아일보』, 1925.01.16.
6	남녀학생가극무도회	1925.08.13. 20시 반	재경김해유학생 학우회	『조선일보』, 1925.08.17.
7	김해여자야학 학예회	1925.12.31.	김해여자야학회	『동아일보』, 1926.01.06.
8	제1회 학예회	1926.02.20. 10시	사립합성학교(2층)	『동아일보』, 1926.02.24.
9	김해음악대연주회	1926.07.29. 20시 반	재부산김해유학생회 주최/ 동아일보 김해지국 후원	『조선일보』, 1926.07.26., 08.08. 『동아일보』, 1926.08.02. 4면 10단
10	학예가극회	1926.12.26. ~27. 20시	김해청년회, 김해여자야학회	『조선일보』, 1926.12.19. 『동아일보』, 1927.01.31.
11	김해소년소녀 현상동화대회	1927.06.10. 20시	김해토요회	『동아일보』, 1927.06.07.

	행사명	개최 날짜	주최	자료출처
12	재만동포구제 음악연극대회	1928.01.04. 19시 반	김해청년동맹, 김해농민연맹 주최/ 동아일보 김해지국, 재외김해학생학우회 후원	『동아일보』, 1928.01.04.
13	자선음악대 연주회 (코리안재즈밴드)	1928.08.07. 21시	김해농민연맹 주최/ 김해청년동맹, 신간회 김해지회 후원	『동아일보』, 1928.08.13.
14	노동야학회 음악무도대연주회	1928.08.24. 20시	김해노동야학회 동창회	『동아일보』, 1928.08.28.
15	재단법인 설립 기념 특별학예회	1929.02.24.	사립합성학교	『동아일보』, 1929.02.25.
16	학예회	1930.02.14.	본교 강당	『동아일보』, 1930.02.19.

* 행사명은 신문기사 내 명칭을 가능한 한 그대로 명시하였다.

* 자료의 출처는 『신문명』, 발행년월일만을 기재하였다.

주로 음악회나 무도회, 가극회 등의 문화 행사가 합성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런 문화행사들은 대체로 기금의 모금, 사회운동 경비의 보충을 목적으로 주최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행사들은 입장료가 있거나 지역 유지들의 의연(義捐)이 따랐다. 경성기근구제회 동정금 마련을 위한 기근구제음악회,⁶⁰⁾ 무산아동을 위한 노동야학 운영 경비 모금을 위한 음악연주회,⁶¹⁾ 재만동포구제금 모금을 위한 음악연주회,⁶²⁾ 노동야학교 유지비 마련을 위한 코리안 재즈밴드 자선음악공연,⁶³⁾ 노동야학회 자체에서 마련한 후원 음악무도회,⁶⁴⁾ 지방공익사업비 보조를 위한 음악대연주회 등이 합성학교 대강당을 빌려 지역민과 마주하였던 것이다.⁶⁵⁾ 이러

60) 『시대일보』「饑饉救濟音樂 同情金이 還至」, 1924.12.15. 2면 1단.

61) 『조선일보』「재영김해유학생의 음악연주대회」, 1926.07.26. 4면 5단. 『동아일보』「김해음악연주 성황」, 1926.08.02. 4면 10단. 『조선일보』「재부김해학생 음악연주 성황」, 1926.08.08. 1면 9단.

62) 『동아일보』「재만동포구제 음악연극대회」, 1928.01.04. 3면 1단.

63) 『동아일보』「음악회 수입금」, 1928.08.13. 3면 9단.

64) 『동아일보』「노동음악 성황 김해읍에서」, 1928.08.28.

한 문화행사는 늘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만원이 되어 수백명, 많게는 수천 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이를 통해 김해지역민의 문화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지역민에게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공간인 만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웅변대회, 현상동화대회 등의 행사들도 계획하고 개최하였다.⁶⁶⁾ 본교 학생들의 학예를 뽑내는 학예회 등 본교 자체 행사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

〈표 4〉 체육 행사

	행사명	개최 날짜	주최	자료출처
1	김해추계대운동회	1921.10.29.	김해사립합성학교	『매일신보』, 1921.11.03.
2	김해축구대회	1921.12.01. 11시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1.12.12.
3	김해합성학교 대운동회	1923.10.20.	사립합성학교	『조선일보』, 1923.11.10., 11.13.
4	김해시민대운동회	1925.05.03. 11시	김해청년회·여자청년회 주최/시대·동아·조선일보 김해지국 후원	『조선일보』, 1925.05.07.
5	김해개인정구대회	1925.05.17.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5.05.23.
6	제3회 전김해축구대회	1925.08.02. ~03.	김해재경학우회	『동아일보』, 1925.08.07.
7	경남축구대회	1925.08.25. ~26.	김해셋빛단	『조선일보』, 1925.08.13. 『동아일보』, 1925.09.02.
8	남조선각회대회	1925.08.28. ~30.	김해노농연합회, 김해청년회 주최/ 동아·조선 김해지국	『조선일보』, 1925.08.21. 『동아일보』, 1925.09.04.

65) 『동아일보』「고향 위하여 유학생들의 활동」, 1929.08.21. 4면 3단.

66) 『동아일보』「김해소년웅변 어린이의 기염」, 1925.01.16. 3면 7단. 『동아일보』「어린이 소식」, 1927.06.07. 3면 4단.

	행사명	개최 날짜	주최	자료출처
9	전(全) 김해육상경기 선수권대회	1926.08.07. ~08.	김해체육회 주최/ 조선일보 김해지국 후원	『조선일보』, 1926.07.25.
10	제4회 전 김해축구대회	1926.07.31. ~08.01.	재경김해학우회 주최/ 김해청년회, 조선일보 김해지국 후원	『조선일보』, 1926.07.29., 08.05.
11	경남소년축구대회	1926.08.02. ~03.	김해소년회	『조선일보』, 1926.08.12.
12	제1회 경남소년축구대회	1926.08.03. ~04.	김해소년회 주최/ 김해청년회, 동아· 조선일보 김해지국 후원	『조선일보』, 1926.07.26.
13	합성학교 하기훈육	1927.07.21. ~08.31.	김해합성학교	『중외일보』, 1927.07.26.
14	김해육상경기대회	1926.08.07. ~08.	김해체육회	『동아일보』, 1926.08.13.
15	제2회 경남축구대회	1926.08.18. ~19.	김해청년회, 조선일보 김해지국	『조선일보』, 1926.08.14.
16	김해닐대회	1928.01.14. 13시	김해청년동맹	『동아일보』, 1928.02.04.
17	전군민춘기대운동회	1928.04.16. 10시	김해청년동맹	『조선일보』, 1928.04.08. 『동아일보』, 1928.04.19.
18	전김해축구대회	1928.07.28.	재경성김해유학사회	『동아일보』 1928.07.12.
19	남조선정구대회	1928.08.04. ~05.	김해청년동맹 주최/ 동아일보 김해지국 후원	『동아일보』, 1928.07.12., 08.13.
20	전김해축구대회	1929.01.03.	재외김해유학회 경성지부	『동아일보』, 1928.12.29.
21	김해군민대운동회	1929.04.14. 9시	김해청년동맹	『동아일보』, 1929.03.27.
22	제6회 전김해축구대회	1929.08.02. ~03. 9시	재외김해유학회 경성지부	『동아일보』, 1929.07.05.
23	제3회 경남소년축구대회	1929.07.25. ~26.	김해소년회 주최/ 김해청년동맹, 동아· 조선일보 김해지국 후원	『조선일보』, 1929.07.17.

	행사명	개최 날짜	주최	자료출처
24	제3회 전김해야학회 연합대운동회	1929.10.20. 9시	김해농민연합회, 김해노동야학회	『조선일보』, 1929.10.08.
25	김해시민대운동회	1931.04.12.	김해농민연맹 청년부, 김해청년동맹 주최/ 조선·동아일보 김해지국 후원	『동아일보』, 1931.03.31. 『조선일보』, 1931.04.08.
26	제2회 남선정구대회	1931.08.22. ~23.	김해청년동맹	『동아일보』, 1931.08.27.
27	김해합성학교 승격기념 대운동회	1931.10.18.	사립합성학교	『동아일보』, 1931.10.19.
28	육상대운동회	1933.01.22.	사립합성학교	『동아일보』, 1933.10.26.
29	제2회 남조선정구대회	1935.07.21.	조선일보 김해지국	『조선일보』, 1935.07.17.

* 행사명은 신문기사 내 명칭을 가능한 한 그대로 명시하였다.

* 자료의 출처는 『신문명』, 발행년월일만을 기재하였다.

각종 사회단체가 주최하고 후원하는 체육 행사도 합성학교 운동장에서 자주 개최되었다. 1926년 3월 5일에는 김해군의 체육 관련 단체가 부실함을 지적하면서 김해체육회가 창립되기도 했는데 이때 체육회의 운동장소는 합성학교 운동장이었다.⁶⁷⁾ 지역민들의 체력 증진 및 화합에 가장 효과적인 이러한 체육 행사 및 활동은 춘계·추계 대운동회, 씨름대회, 축구대회, 육상경기대회, 정구대회 등 다양한 형태로 열려 지역민들의 축제의 장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체육 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일본 경찰들의 경계 대상이기도 했다. 특히 1923년 10월 20일 사립합성학교에서 개최된 대운동회는 일제 당국의 사립학교에 대한 인식과 경계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일례이다.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김해합성학교 운동회 사건’으로 언급된 이 사건은 추계대운동회의 마지막 종목이었던 ‘무궁화 삼천리’ 경기

67) 『조선일보』 「김해체육 창립」, 1926.03.15. 4면 3단.

를 김해경찰서가 문제 삼으면서 불거진 것이었다. 조선 전도를 먼저 완성하는 팀이 이기는 이 경기가 종료된 후 승부가 결정되는 순간 만세를 부른 것이 원인이었다. 김해경찰서에서는 교사 노백용(盧百容), 이능식(李能植)과 당시의 상황을 신문에 게재한 안효구, 최원호, 백기룡 등 총 5명을 체포하여 이 경기가 조선독립을 의미하고 만세 선창이 독립만세를 의미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다. 언론은 '실소하고 분노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일제가 조선인의 행동거지와 언동에 대하여 색안경을 끼고 대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조선인이 조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뿐인데 이러한 운동경기까지 간섭하고 심문한다면 '조선 전체를 곧 독립당으로 간주하여도 가능하지 아니한가'하고 반문하였다.⁶⁸⁾ 일반민중들도 운동경기를 보고 조선독립으로 인식하여 조선인을 체포·구류하는 것은 일제 당국이 사립학교를 미워하는 데서 나오는 과민한 처사라고 비난하였다.⁶⁹⁾ 「운동 만세도 독립 만세?」라는 기사의 대제목이 당시 조선인과 김해지역민들의 아연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일제는 제도권 밖의 지역사립학교를 식민지 교육체제에 맞게 재편하고 통제하고자 하였다. 사립학교는 지역 유지 및 지식인·학교·학생·지역민의 중층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조선인의 민족적 자율성이 확보되고 실현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무궁화 삼천리'라는 운동 종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립학교와 그 관계자들, 그리고 해당 지역민들은 사립학교에 조선적이고 민족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교육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는 지역 교육 공동체 내 행위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역동적으로 관철되어 나갔다. 반면 이러한 조선 교육의 역동성을 강하게 탄압하고자 했던 일제 당국의 의도 역시 지역사회의 교육 현장에 빠르게 퍼져나가 조선인 교육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68) 『조선일보』「경찰당국의 과민한 신경」, 1923.11.13. 1면 1단 사설.

69) 『조선일보』「운동만세도 독립만세?」, 1923.11.10. 3면 4단.

4) 기타 행사 및 지역민 수용 공간

사립합성학교는 사회단체의 활동 공간, 지역사회의 문화·체육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하지만 그밖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역사회 및 지역민들과 접촉하고 있었다. 먼저 본교 자체 행사들을 치러내는 공간이었다. 1920년 5월 10일을 창립일인 사립합성학교의 창립기념식이 해마다 대강당 등 교 내에서 열렸으며 재학생들의 졸업식을 개최하여 지역 인재의 사회 진출을 강조하였다. 그밖에 사립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던 합성교부형회의 행사도 합성학교 내에서 개최되고 있다.

〈표 5〉 기타 지역사회 공간 활용

	행사	개최 날짜	주최	자료
1	김동성 군 만국기자대회 부회장 당선축하식	1921.10.28. 16시	동아일보 김해분국 주최/ 김해청년회 후원	『동아일보』, 1921.11.04.
2	조선청년회연합회 창립기념 축하행사	1921.12.01. 11시	김해청년회	『동아일보』, 1921.12.12.
3	형평사 김해분사 설립 축하식	1923.08.11. 9시	형평사 김해분사	『동아일보』, 1923.08.18.
5	김해사립합성학교 제4회 창립기념식	1925.05.10. 9시	본교	『동아일보』, 1925.05.13.
6	합성학교부형회	1925.06.06. 9시	본교	『조선일보』 『동아일보』, 1925.06.09.
8	제4회 졸업식	1927.03.22. 10시	본교 대강당	『동아일보』, 1927.03.27.
10	김해새벗연합회 조직	1927.04.21. 14시	김해소년단체	『동아일보』, 1927.04.25.
11	합성학교 임시학부형회	1928.02.15. 13시	본교 강당	『동아일보』, 1928.02.19.
13	소작관행 설명회	1928.10.06. 10시	김해지주회	『동아일보』, 1928.10.11.

	행사	개최 날짜	주최	자료
15	합성학교부형회 창립총회	1930.04.23. 10시	본교 강당	『조선일보』, 1930.05.01.
16	고 허발 장례식 (학교장)	1931.07.03. 9시	김해교육회, 김해합성학교	『조선일보』, 1931.07.08.
17	제2회 졸업식 (재단법인 승격 후)	1933.03.18. 10시	본교 강당	『동아일보』, 1933.03.24.
18	이재민 수용	1933.07.03.		『동아일보』, 1933.07.03. 외
19	이재민 수용	1934.07.22. ~		『동아일보』, 1934.07.23. 외
20	이재민 수용	1933.08.02. ~		『조선일보』, 1936.08.02. 외

* 행사명은 신문기사 내 명칭을 가능한 한 그대로 명시하였다.

* 자료의 출처는 『신문명』, 발행년월일만을 기재하였다.

대표적인 남선농업지로 꼽히던 김해는 낙동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빈발하는 홍수에 많은 피해를 입는 지역이었다. 특히 1920년, 1925년, 1933년, 1934년의 대홍수는 김해지역민들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 피해는 낙동강 하류부 지역에 특히 더 심해서 합성학교가 위치한 김해읍보다 남쪽에 위치한 마을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대홍수로 인한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그나마 피해가 적은 김해읍의 합성학교와 극장 등은 이재민의 수용처가 되었다. 지역사회가 위기에 봉착하는 순간에도 사립학교는 구호 공간으로 지역민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합성학교 설립자인 허발의 학교장도 합성학교에서 치러졌다. 지역민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학교의 설립과 유지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지역유지이자 민간교육가의 장례가 합성학교장으로 거행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성대한’ 장의는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영결식에 참석하였다고 한다.⁷⁰⁾ 지역사회 전체가 설립자의

70) 『동아일보』 「김해의 은인 허발 씨 영면」, 1931.06.15. 5면 3단. 『조선일보』 「김해의 교육가 고 허발 장의 성대」, 1931.07.08. 6면 4단.

별세를 김해의 손실이라 여기며 애도하는 모습에서 사립합성학교의 지역 내 입지와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합성학교와 지역사회의 동요⁷¹⁾

1) 형평사 김해분사와 지역민의 충돌

1923년 8월 11일 오전 9시 김해 사립합성학교에서는 지난 1일 형평사 김해분사 설립을 기념하기 위한 창립축하식이 거행되었다. 김해청년회 회원 안효구, 김해교육회 대표 인동철 등이 축하식에서 축사를 하는 등 김해 사회단체는 형평사원들의 신분 해방과 백정의 사회적 처우 개선에 적극 지지하고 호응하였다.⁷²⁾

하지만 당시 김해지역사회는 형평사 분사의 설립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했다. 양반, 농민, 노동자 등 여러 계층의 지역민들이 형평사의 활동에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반감은 형평사 분사 설립을 원조한 김해청년회와 김해교육회로도 향했다. 그러던 중 일본 동경에서 북성회 강연단이 강연회를 위하여 김해에 도착하자 김해청년회와 형평사 분사는 이들의 마중을 나가기로 하고 이 환영에 청년회와 천도교청년회 경영의 야학회 학

71) 김해에서 발생한 형평사 김해사건과 합성학교 유지 운동, 야학유지운동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다루고 있다. 연구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대강은 모두 밝혀진 셈이다. 김승, 「한말·일제하 김해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 2014, 237~255쪽. 지호원, 「일제하 김해 지방의 민중 교육」, 『교육사상연구』 4, 1995, 152~161쪽.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형평사 사건과 합성학교 분규는 김해청년회를 주체로 사건을 분석하고 있고 야학유지운동 역시 민족적인 민중교육운동의 일환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합성학교라는 행위 주체가 잘 부각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합성학교를 하나의 행위 주체로 두고 합성학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김해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72) 『동아일보』 「형평김해분사 축하」, 1923.08.18. 4면 5단.

생들을 동원하고자 했다. 일부 학생들이 청년회 간부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백정들과 함께 섞이는 것에 대해 불평하며 출영(出迎)을 거부하자 학생들의 동원은 결국 무산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북성회 강연 당일에 발생하였다. 북성회는 김해청년회와 형평사의 후원하에 8월 10~11일 이틀간 합성학교에서 강연회를 열었는데 주최 측에서 형평사원들과 함께 출영하는 것을 거부한 학생들의 강연회 입장을 막았던 것이다.

김해의 한 농민이 고기를 사러 갔다가 형평사원과 언쟁이 붙는 등 지역사회는 형평사 분사와 관련하여 일상에서 진통을 겪는 중이었다. ① 백정은 출입하는 강연회에 일반 학생들을 막은 일, ② 북성회 강연 당일 강연자가 “농민은 백성만도 못하다”고 언급하여 방청객을 분개하게 한 일, ③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합성학교를 형평사 분사 창립축하식에 빌려준 일은 형평사에 반감을 갖고 있던 김해의 농민과 노동자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분노한 지역민들은 1일에 행동 개시를 위한 사전 모임을 가진 후 사발통문을 돌리는 등 세력을 결집하기 시작하였다. 14~16일의 3일 간 무려 1만여 명에 가까운 농민과 노동자가 모였으며 이들은 형평사를 지원한 김해청년회와 교육회, 합성학교를 공격해 건물의 일부를 파괴하고 해당 단체 관계자와 형평사 간부의 집을 습격하여 모두 부수는 등 격렬하게 반감을 표출하였다. 16일에는 공간을 제공한 합성학교까지 완전히 파괴할 목적으로 천여 명의 군중이 집결하였는데 일부의 지역민이 “우리의 자손을 가르치고자 우리의 돈과 힘으로 건축한 것을 우리가 파괴하는 것이 무슨 시원할 것이 있느냐”고 만류하여 큰 피해는 면할 수 있었다.⁷³⁾

문제는 당국과 일본 경찰의 태도였다. 형평사 김해분사와 농민·노동자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피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김해경찰서의 경찰들

73) 『조선일보』 「김해사건 후보 수천 군중이 연 3일은 소요」, 1923.08.24. 3면 1단.

은 등불을 들고 군중을 따라다니며 방관만 했던 것이다. 이런 사태를 지켜 보던 김해의 지역 인사들은 경찰이 애매한 태도, 더 나아가서는 평복을 입은 경찰이 폭동을 일으킨 쪽을 원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사태를 더 키웠다고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농민·노동자와 백정 간의 반감은 물론이지만 지역민의 일본 경찰에 대한 반감도 높아져 김해사회는 일촉즉발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상황은 김해청년회가 책임이 있는 간부를 경질하고 적극적으로 무마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또한 16일 경찰이 소동을 일으킨 쪽의 일부를 체포하고, 17일에는 면장이 양측을 중재하였으며, 1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검사가 출장을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농민과 노동자들은 ‘백정은 어디까지나 같이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더 강해져 지역사회의 균열과 동요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⁷⁴⁾ 합성학교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형평사 김해사건이 촉발된 상징적인 장소이자 여론 형성의 장으로 인식되어 유리창이 깨지는 등 공격을 당하거나 파괴의 위협을 겪었다. 형평사원들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관과 백정의 신분 해방이라는 근대적인 사회운동이 김해와 합성학교라는 지역사회 공간에서 충돌했던 것이다. 이렇듯 합성학교는 전통과 근대가 충돌하는 갈등의 현장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지역민의 교육 공간이라는 공감을 얻으면서 큰 화는 면할 수 있었다.

2) 김해교육분규사건

합성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계해왔던 김해교육회가 창립 당시에 내세

74) 『동아일보』「김해의 대분요」, 1923.08.20. 3면 6단. 『조선일보』「농민 천여 명이 작당」, 1923.08.21. 3면 1단. 『조선일보』「김해의 계급적 대충돌. 원인은 형평사를 반대하여」, 1923.08.21. 3면 1단. 『동아일보』「김해소요 상보 청년회 교육회 학교를 파괴」, 1923.08.22. 3면 1단. 『동아일보』「김해소요 후보」, 1923.08.23. 3면 1단.

왔던 사업의 최종 목적은 김해사립고등보통학교 설립이었다. 1924년 김해 교육회의 총회에서는 3년제의 농림학교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듬해 3월에는 중등학교 및 기타의 학교 설립은 유예하고 현재의 합성학교를 충실히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⁷⁵⁾

그러던 1926년 2월 김해의 대소 부르주아, 친구 면장, 면협의회원, 도평의원 및 기타 일제 당국과 가까운 인사들이 도 당국자와 교섭을 한 후 김해공립농업학교 설치기성회를 조직하였다.⁷⁶⁾ 이는 김해공립농업학교 설치에 김해교육회 재산을 기부하면 고려해보겠다는 경남 내무부장의 발언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기성회 세력을 지지하는 태도를 은근히 드러내 보인 것이지만 사실상 지역의 사립학교를 규제하고자 했던 당국의 의도가 여기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성회 측에서는 경남 내무부장의 언급을 ‘유리한 답’이라고 여기고 1926년 3월부터 합성학교의 폐지와 농업학교의 설립을 추진해나가기 시작했다. 기성회의 요구는 김해교육계를 위하여 합성학교는 폐지하고 교육회의 재산 13만 원 중 10만 원은 농교 기성에, 3만 원은 유치원 설립에 사용하자는 것이었다.⁷⁷⁾

같은 해 5월에는 합성학교 유지파인 교육회 측과 기성회 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김해사회의 주 관심사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⁷⁸⁾ 경

75) 『조선일보』「지방산업소개-김해교육회」, 1926.01.06. 4면 1단.

76) 『조선일보』「김해농교 기성회 제군에게」, 1926.06.02. 1면 8단.

77) 『동아일보』「주목의 초점이 되던 합동간담회도 결렬」, 1926.10.17. 4면 1단.

78) 김해공립농업학교 설립기성회 측은 경남도평의원원이었던 김정진과 당초 김해교육회에 합성학교 유지를 위한 기부금을 내기로 약속을 했던 교육회 회원 배인환, 배진환, 김덕재, 구한희, 김일정 등이었다. 『동아일보』「문제증첩한... 합성교의 유래(하)」, 1926.09.23. 4면 4단. 반면 김해교육회 측은 설립자인 허발과 박석권을 비롯하여 김해교육회의 배종철, 배창현, 최원호, 인동철 등이 있었다. 그밖에 농교 기성회에 반대하고 나선 이들로 직접 거론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김해교육회 회원이었던 김해청년회원으로서는 배기홍, 이원, 배기순, 배기철, 안효규(안광천)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교육회는 김해청년회와 성격이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합성학교를 설립하고 오랜 시간 운영

남기자동맹, 마산기자단을 비롯해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조선일보』에서도 이 갈등을 보도하면서 ‘김해에 농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3만 원만 있으면 김해에 농교 설치를 허가하겠다는 당국의 답변 하에 합성학교를 폐교하려는 시도는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육회 측에서는 같은 해 8월 김해청년회 제17회 정기총회에서 기성회 측을 박멸하기로 뜻을 모으고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또한 조선 자체에서 민간 경영하는 경남 유일의 교육기관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성명서를 공포하여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서기 시작하였다.⁷⁹⁾ 성명서에 드러난 교육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⁸⁰⁾

김해사립합성학교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설립한 잡종학교였으나 그간 수많은 파란 곡절을 감수하여 전 관계자 악전고투의 결정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재산이 수십만 원에 달하여 공립보통학교와 비례하여 추호의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선사학의 중진(重鎭)으로 자처하는 오늘날에 있어 일부 불량분자는 3년제의 공립농업학교의 창립을 구실삼아 동교를 파괴하려 함에 이르러 우리들은 이 우애없는 유감의 일이라 사료하는 동시에 성명서를 발표하여 세인의 의혹을 풀고 우리들의 태도를 선명함.

1. 김해사립합성학교의 재산을 이동 또는 변동하여 3년제의 공립농업학교

및 유지에 기여한 허발의 경우 1908년 김해군의 사립일신학교 취지서와 기독교명덕여자학교 의연인 명단에, 1921년 5월 조선교육개선건의안 제출 발기인(박석권도 참여)에 이름을 올렸으며 1925년에는 안희제와 더불어 경남유림대회에서 교육사업 공헌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을 계획하기도 하였을만큼 민족교육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 『大韓每日申報』 「慶南金海郡活川面私立日新學校趣旨書」, 1908.12.13. 4면 3단. 『大韓每日申報』 「慶尙南道金海郡基督明德女學校義捐人姓名」, 1908.03.16. 4면 3단. 『동아일보』 「경남 유림의 각성」, 1925.02.18. 3면 3단.

79) 『동아일보』 「김해청년회 정기총회」, 1926.8.07. 4면 9단.

설립비에 충당함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후 합성학교의 유지발전에 한층 노력하기를 기함

이유

1. 4백 명 보통교육이 150명 실업교육에 불하하며
1. 사립합성학교의 파멸은 김해인사의 치욕일 뿐 아니라 조선인 사회의 치욕인 것.
1. 사립합성학교의 재산을 이동하지 않더라도 공립농업학교 기성자금은 다 방면으로 구득할 수 있는 것.
(가) 반동분자가 합성학교를 위하여 유지비로서 출연을 승낙한 그 금액을 수합(收合)하더라도 농교기성금은 충분한 것
(나) 김해 13면에 3만 원 분담(分担)은 용이한 것
1. 김해는 경남에 있어 실업학교 후보지인 것은 도당국이 승낙하는 바이라 하필 합성학교를 희생하지 않더라도 하동 울산의 예에 의하여 실업학교 설립은 용이한 것.

대정15년(1926년) 8월

김해사립합성학교 설립자 허발, 박석권

김해사립합성학교 경영자

김해교육회 중역회·간사회·평의회 일동

이후 다수의 지역 인사 및 사회단체들은 교육회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합성학교의 유지를 피력하였다. 또한 기성회 측의 인사들이 1920년 합성학교의 설립 당시 설립기본금의 출연을 승낙만 하고 아직까지도 내지 않고 있는 처사를 비판하기도 하였다.⁸¹⁾ 합성학교 졸업생 동창회에서도

80) 『동아일보』 「합성교폐지는 허전-고보기금을 충용」, 1926.08.10. 4면 2단. 『조선일보』 「농교문제의 합성교 태도」, 1926.08.10. 2면 1단.

81) 김해청년회의 배종철은 언론의 지면을 빌려 기성회 측의 활동을 ‘가소로운 일’로 표현하면서 ‘합성학교의 재산이 욕심이 나서 죽을 지경이면서, 아니 합성교의 10만 재산을

교육회를 ‘극력 원조’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지지를 선언했으며,⁸²⁾ 김해의 각 사회단체도 성명서를 통해 합성학교를 절대로 옹호하며 김해공립농업학교의 창설비는 김해 13면이 각각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⁸³⁾

언론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여론도 기성회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1926년 9월의 한 사설에서는 이 교육분규사건을 관공리와 일부의 부호가 한 편이 된 기성회파와 합성학교 관련자·김해교육회 및 기타 민간단체가 한 편이 된 교육회파의 대립으로 보고 일종의 민간과 관변의 세력전으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합리적이고 대등한 관민의 세력전이라기보다는 ‘관력이 민간사업을 유린(蹂躪)’하는 관변의 횡포라고 하면서 ‘조선에 흔히 있는 관력의 만능주의로 민간의 성의 있는 사업을 싫어하고 압박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였다. 덧붙여 당국자의 반성을 촉구하고 김해지역의 귀한 노력이 김해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⁸⁴⁾ 조선인 사회·지역사회를 견인하는 사립합성학교의 유지가 ‘김

이용하자고 떠들고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합성교가 재정이 곤궁해서 폐교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선전한다니 자가당착도 분수가 없는 일이요. 우스워서 허리가 아플 지경이다.’라고 강경하게 비판하고 있다. 『동아일보』「골계의 농교기성회」, 1926.09.17. 4면 5단. 동 단체의 최원호 역시 ‘출연만 승낙하고 1전 현금을 내지 않는 회원’인 기성회 측 인물들을 비꼬고 기성회 측의 행동을 악희(惡戲), 수작(酬酢) 등으로 표현하며 거칠게 비판하였다. 『동아일보』「문제중첩한... 합성교의 유래(하)」, 1926.09.23. 4면 4단.

82) 『조선일보』「김해합성교 동창회 결의」, 1926.08.22. 2면 10단.

83) 교육회 측을 옹호하는 성명서를 제출한 김해 사회단체는 김해토요회, 김해제사회, 김해 농민연맹, 김해청년연맹, 김해남통회, 김해영명계, 김해형평사, 김해형평사청년회, 김해체육회, 김해청년회, 김해의용단, 김해여자청년회, 김해여자야학회, 여자한빛회, 사립합성학교 동창회, 김해새빛단, 김해재단 등이다. 이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소극적 표명」으로 1. 김해교육회 또는 합성학교 재산으로서 공립농업학교 설립을 주장하는 소위 공립농업학교 기성회에 대해서는 그 기성방침이 원시 오산인 것과 그 성취에 절대불가능한 것을 지시하여 반성이 없을 때에는 그 해체에 노력할 일, 1. 김해교육회와 합성학교를 중상하는 언론기관을 발견 즉시 비매동맹을 실시할 일, 1. 관공리직에 있는 자로서 직접 간접교활한 언사와 탈선적 행동을 감행하는 자에 한하여는 그 감독관청에 경고할 일 등의 세 가지 항목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안하고 있다. 『동아일보』「합성학교를 절대로 옹호」, 1926.09.21. 4면 4단.

해인의 명예'와 연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회에서도 사립합성학교의 파멸은 '김해인사의 치욕일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치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⁸⁵⁾

이렇듯 교육분규를 둘러싼 여론전에서 합성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할만한 합성학교', '18년 성상의 역사가 있는 우리 조선인의 힘의 결정이며 꽃 같은 자랑거리', '남선사학의 웅(雄)', '우리의 자랑거리',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는 지극히 필요한 교육기관'으로 표현되고 있었던 합성학교는 김해지역의 자랑이자,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포용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해 나갔던 것이다.

이 교육분규사건에 쏠린 김해지역민의 관심은 점차 고조되어 각 가정과 아이들에게까지 파고들었다. 교육회와 기성회의 분규로 한 가정에서 기성회파인 아버지와 교육회파인 아들이 갈등을 벌인다는 일화가 떠돌았으며 아이들은 이 사건을 동요로 만들어 부르며 놀았던 것이다.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⁸⁶⁾

교육회원 용감해 기성회 별별 떠다
천하무적 교육회 범과 같이 뛰논다
하하하 저 기성회 봐 고양이 앞에 쥐걸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합성학교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최고조를 향해 가고 있었다. 김해교육회는 1926년 10월 14일 총회를 개최하고 경남 각 지역의 사회단체를 총동원하고자 했는데 문제의 확대를 우려한 일제 당국은

84) 『동아일보』 「김해의 교육분규사건」, 1926.09.23. 1면 1단 사설.

85) 『동아일보』 「문제중첩한... 합성교의 유래(하)」, 1926.09.23. 4면 4단.

86) 『동아일보』 「분규로 생긴 동요」, 1926.10.17. 4면 3단.

보안법 위반을 내세우며 교육회측의 집회를 금지시켰다. 이에 간부들은 명칭을 변경하여 합성학교에서 교육회와 기성회의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3천 여 명의 군중 앞에서 김해군 13면이 농교 설립 비용을 각출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하였다.⁸⁷⁾ 하지만 이조차 기성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간담회는 끝내 결렬되었으며 교육회 측의 지역 인사와 일반 민중들의 분노와 기세는 더욱 높아졌다. 농민 5백여 명도 풍물을 울리며 읍내를 순회시위하면서 도당국과 기성회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하였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민인호 김해군수는 ‘타협에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사립인 합성학교를 졸업해보아야 면서기, 군고원도 하나 얻어하지 못할 것’이라며 은근히 기성회에 가담한 태도를 드러냈으며 우근(羽根) 김해경찰서장은 자신들이 ‘어찌지 못한다’는 식으로 방관자적이고 애매한 태도를 고수하였다.⁸⁸⁾

이렇듯 방관적이던 도 당국이 10월 말부터 태도를 바꾸었다. 합성학교를 둘러싼 김해교육분규사건을 문제 삼으면서 도청 학무과가 교육회의 금고와 문고를 봉쇄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11월 4일에는 김해합성학교 설립자인 허발과 박석권 두 사람을 불러들여 ‘이번 기회에 합성학교의 재산으로 농업학교를 설립하면 명칭은 합성농업학교라고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고 위협을 가했다.⁸⁹⁾ 기성회 옹호를 노골적으로 피력한 것인데 이는 결국 지역사립학교를 규제하고 일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립각종학교를 식민지 학교 체제에 포섭하려는 당국의 의도가 그대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김해교육분규사건은 분규가 일어난지 약 1년 만인 1927년에 와서야 김해군수 민인호의 중개로 학교 건물을 교환하는 조건에 양측이 동의하

87) 『동아일보』 「총회금지로 합동간담회」, 1926.10.16. 4면 2단.

88) 『동아일보』 「주목의 초점이 되던 합동간담회도 결렬」, 1926.10.17. 4면 1단.

89) 『동아일보』 「합성교설립자에게 폐지론을 역설」, 1926.11.08. 4면 1단.

면서 마무리될 수 있었다. 합성학교 교사(校舍)를 설립 예정인 공립농업학교에 기증하고 합성학교가 사용할 건물은 기성회측에서 신축하여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⁹⁰⁾ 도당국이 1월 18일 교육회의 금고 봉쇄도 해제함으로써 김해사회를 긴장시켰던 분규는 종료되었다. 하지만 1928년 1월 19일이 되면 합성학교가 완전히 기존 건물을 비우게 되었으며 지역민에게 열린 교육 공간이었던 2층 벽돌양옥의 합성학교는 공립농업학교가 되고 말았다.⁹¹⁾ 김해교육분규사건의 타협과 종료가 일제의 압력 하에 합성학교의 희생을 담보함으로써 가능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3) 일제의 통제와 지역사회의 동요

1929년 11월 광주에서 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전국의 학생들이 이에 호응하기 시작하였다.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소식을 접한 김해지역의 학생들에게서도 만세시위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1930년 1월 25일 김해공립농업학교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계획하다가 경찰에게 감시를 받게 된 것이다.⁹²⁾ 하지만 일제 경찰의 감시 속에서도 시위 준비는 착착 진행되어 나갔으며 2월 1일 오전 11시 30분, 수업을 마친 후 모인 김해농교 학생 2백 여명은 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벌였다. 김해경찰서는 경찰들을 총동원하여 학생들을 겨우 진압하고 70여 명을 검거하였다.⁹³⁾

일제 당국은 김해농교의 만세 사건으로 주변의 공립보통학교와 사립합성학교가 동요할 것을 염려하여 경계를 강화하던 중 2월 3일 김해보통학

90) 『동아일보』 「교환조건으로 합성교사만 인도」, 1927.01.27. 4면 3단. 『조선일보』 「농교 문제 마침내 해결」, 1927.02.01. 2면 9단.

91) 『동아일보』 「김해합성교사 이전」, 1928.01.24. 4면 8단.

92) 『조선일보』 「김해공보교도 시위 계획 발각」, 1930.01.25. 2면 4단.

93) 『조선일보』 「김해농교학생 2백여 명 시위만세」, 1930.02.03. 2면 1단; 「김해학생만세로 70명 검거」, 1930.02.04. 2면 5단. 『동아일보』 「70명을 현장에서 검거」, 1930.02.04. 2면 1단.

교 여학생들의 만세시위를 계획 단계에서 검거하였다.⁹⁴⁾ 하지만 학생들의 시위 열기는 사그러들지 않고 이어져 4일에는 농교의 학생들이 다시 한번 만세를 불렀다. 같은 날 하교길에서 합성학교 앞으로 모이는 공보교 및 합성학교 학생들을 미리 경계 중이던 일본 경찰이 해산시키고 일부를 검거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때 검거된 합성학교 학생은 연말중, 이말명(이말복), 박용근 등 3명이었다.⁹⁵⁾ 이때 함께 검거된 농교 학생들은 보름여 만에 풀려났으나 합성학교의 이말복은 2월 24일까지 구류되어 있었다.⁹⁶⁾

같은 시기 김해에는 격문사건도 발생하였다. 1930년 1월 24일 밤 광주학생항일운동과 관련한 격문이 합성학교와 농교 및 공보교 교실과 시내 곳곳에 뿌려졌던 것이다. 이것이 제1차 김해격문사건이다. 학교의 교실 책상에 격문이 배포되어 있었던 것은 김해지역 학생들의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공분을 실제적 저항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를 발견한 김해경찰서에서는 김해의 주요 인사들을 샅샅히 수색하였다.⁹⁷⁾ 학생 사건을 통해 지역사회의 반일 분위기와 저항적 경향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한 일본 경찰은 집요한 수사를 통해 김해청년동맹의 김미동, 김차봉과 신간회 김해지부의 최여봉으로 수사망을 좁혀갔으며 최종적으로 김차봉을 지목하여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으로 송치하였다.⁹⁸⁾

94) 『동아일보』「김해보교 여생도 만세계획 발각」, 1930.02.05. 2면 9단. 『조선일보』「김해 공보교 만세계획으로 여학생 다수 피검」, 1930.02.05. 2면 8단.

95) 『조선일보』「김해농교생 우복 만세고창」, 1930.02.07. 2면 1단. 『김해양교생 동요 9명 우복검거』, 1930.02.06. 2면 11단.

96) 『조선일보』「김해 합성교생 아직도 취조 중」, 1930.02.24. 2면 2단.

97) 『동아일보』「김해에서도 20명을 검거」, 1930.01.26. 2면 7단. 『조선일보』「김해에도 격문 학교와 가로에」, 1930.01.27. 2면 1단. 『조선일보』「김해격문사건으로 청소년 20여 검거」, 1930.01.28. 2면 3단. 『동아일보』「김해서에서 20여 명 검거」, 1930.01.30. 7면 1단.

98) 『조선일보』「김해격문사건으로 청맹원만 계속 취조」, 1930.02.01. 2면 1단. 『조선일보』「김해격문범 부산 이송」, 1930.02.06. 2면 9단.

하지만 일제 당국의 강력한 검거 의지에도 불구하고 김해에서는 2월 20일 제2차 대규모 격문사건이 일어났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음각으로 새긴 글자가 새겨진 수천장의 격문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때도 역시 학교를 중심으로 김해읍 곳곳에서 격문이 발견되었다. 이에 지역사회가 동요하자 경찰은 ‘허둥지둥 대활동’을 하며 청소년만 해도 20여명을 검거하는 등 강압적인 가택수사와 취조를 이어갔다. 청소년의 부모들은 당황하며 공포를 느꼈으며 김해지역의 분위기는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다.⁹⁹⁾ 이런 상황에서 제2차 격문사건 당시 배포되었던 격문이 24일 다시 한번 김해의 주택가와 시장 일대에 뿌려지는 제3차 김해격문사건이 발생하였다.¹⁰⁰⁾ 김해격문사건의 혐의자들은 부산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받고 형(刑)을 언도받았는데 이때 법정 안은 ‘입추의 여지가 없이 대혼잡’을 이룰 정도로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제는 1920년대 후반부터 강화해나가던 제도 밖 민간교육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해나갔다. 김해지역 민간교육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192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합성학교 교사를 빌려 쓰던 김해여자야학교도 이 시기 일제의 규제 대상이 되었다. 일제가 ‘경영자가 불온’하고 ‘교원에 불온분자가 혼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김해여자야학회의 폐쇄를 명령하였던 것이다.¹⁰¹⁾ 김해여자야학회는 김해청년동맹에서 경영하던 것을 1928년 6월 신간회 김해지회가 받아 경영하게 되었

99) 『조선일보』「김해읍 전 시가 또 다시 격문 배포」, 1930.02.24. 2면 1단. 『조선일보』「김해 재차 격문 검거는 의연 계속」, 1930.02.26. 2면 1단. 『조선일보』「경남 김해군에 또 인쇄한 격문」, 1930.02.26. 2면 11단. 『동아일보』「김해에 격문 20여 명 검거」, 1930.02.26. 2면 9단.

100) 『조선일보』「경남 김해군 내 제3차 격문살포」, 1930.02.28. 3면 6단. 『동아일보』「김해시내에 제3차 격문」, 1930.03.02. 7면 5단. 『동아일보』「김해시내에 제3차 격문」, 1930.03.03. 9면 5단.

101) 『동아일보』「10년의 역사가 있는 여자야학을 금지」, 1928.08.03. 4면 7단. 『동아일보』「여자야학회 폐쇄를 명령」, 1928.11.03. 4면 2단. 『조선일보』「김해 신간지회 경영의 여자야학 불허가」, 1928.11.06. 3면 9단.

는데 일제 당국이 이 신간회 김해지회를 ‘불온한 단체’로 간주했던 것이다.¹⁰²⁾ 이에 야학회 측은 경영단체를 김해야학협회로 변경하고, 불온하다고 지적된 강사까지 교체하면서 당국의 지시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¹⁰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학부당국은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며 야학의 허가를 미뤄 개학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김해의 지역사회는 ‘당국의 간섭이 너무 무리하다’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처사가 ‘조선인 교육운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¹⁰⁴⁾ 여러 가지 진통 끝에 김해여자야학회는 근우회 김해지회에 인수되어 지역 내 조선인 여학생들의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¹⁰⁵⁾

조선인 사회의 민간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던 ‘제도 내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교육기관’을 통제하고자 했던 일제는 결국 1929년 2월 19일 부령 제 13호로 사립학교 규칙의 일부를 개정 발표하였다.¹⁰⁶⁾ 소위 「사립학교취체령」으로 불리는 이 개정은 ‘사립학교 유사기관들을 국가의 법규에 두고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필요’에서 이루어졌다. 사립각종학교가 실제 제도 내의 학교와 같은 형태의 교육시설을 하고 있음에도 정식으로 제도 밖에 있어 일제 당국이 ‘적당한 지도감독을 가할 수 없는 행정상의 결함을 보충’하려는 취지의 개정이라는 것이었다.¹⁰⁷⁾

102) 『동아일보』「여러가지 구실로 야학 허가를 천연」, 1928.09.30. 4면 8단.

103) 『동아일보』「야학협회 설치」, 1928.08.16. 4면 4단. 『동아일보』「학부령이 책임지고 지사에 재차 진정」, 1928.11.09. 4면 3단. 『동아일보』「요구대로 강사변경 그래도 여전히 불허」, 1928.12.04. 4면 6단.

104) 『동아일보』「요구대로 강사변경 그래도 여전히 불허」, 1928.12.04. 4면 6단. 『동아일보』「경영자 변경 11일부터 개학 김해여자야학」, 1929.01.17.

105) 『동아일보』「경영자 변경 11일부터 개학 김해여자야학」, 1929.01.17. 『조선일보』「김해근우위원회」, 1929.04.23. 4면 5단.

106) 『매일신보』「私立學校規則 一部改正發布」, 1929.02.19. 1면 4단. ‘조선총독부령 제13호 사립학교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함. 소화4년 2월 19일 제16조 2 감독관청에서 학교의 사업을 위하는 것이라 인정하는 때 그 뜻을 관계자에게 통고하여 본령의 규정에 의하게 하며 또는 이를 금지할 것. 제20조 제1항 중 제11조 내지 제16조를 제11조 내지 제16조의 2로 개정함. 부칙 본령은 발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사립학교취체령을 발표한 이후 일제의 사립각종학교 규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 취체령을 발표한지 3개월 뒤인 1929년 5월, 김해여자야학교가 제출한 허가신청서를 반환하고 인가를 거부했던 것이다.¹⁰⁸⁾ 같은 상황에 처했던 김해노동야학회와 함께 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대회를 개최하려고 시도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당국은 1930년 9월 두 야학 모두에 일시 폐쇄명령을 내렸다.¹⁰⁹⁾

김해여자야학회는 당국의 폐쇄명령에도 수업을 계속해나가면서 극력 저항하였다.¹¹⁰⁾ 당국이 출동하여 강제폐쇄를 단행하기까지 했지만 폐쇄명령에 불복하고 야학 유지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였다.¹¹¹⁾ 하지만 당국과 야학회의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930년 11월 24일에는 「노동자·농민 무산시민에게 격함」이라는 격문이 김해 시내에 수천 장 살포되었다.¹¹²⁾ 김해지역민의 교육을 10년여 간 담당해왔던 중요한 기관인 김해농민야학회와 김해여자야학회의 강압적 폐쇄 압박에 대한 저항의 일환이었다.

107) 이때 경남의 사립각종학교 보통교육기관은 총 51개소가 있었다. 『매일신보』『「사립학교 유사기관 금후 감독지도」, 1929.02.19. 1면 4단.

108) 『동아일보』「김해 2개 야학 허가청원 반환」, 1929.06.12. 4면 7단.

109) 『조선일보』「김해노야 폐쇄명령으로 시민대회 개최」, 1929.08.25. 4면 5단. 『조선일보』「김해노야문제로 개최하려던 시민대회 금지」, 1929.08.27. 4면 5단. 『동아일보』「경남도지사 명의로 양 야학에 폐쇄명령」, 1930.09.20. 3면 1단.

110) 김해여자야학회와 김해양야학회의 1930년 야학유지운동의 전반적인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지호원, 「일제하 김해 지방의 민중 교육」, 『교육사상연구』 4, 1995, 152~161쪽 참고.

111) 『조선일보』「김해노동야학 강제폐쇄 단행」, 1930.12.09. 6면 5단.

112) 이 격문사건으로 김해농민연맹 간부 허성도와 김해청년동맹 구왕삼이 취조를 받았으며 이후 허성도가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 혐의와 협박죄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동아일보』「남녀야학교와 무산시민에 격」, 1930.12.09. 3면 1단. 『조선일보』「격문살포한 청년 2명을 송국」, 1930.12.19. 7면 3단. 『동아일보』「김해야학폐쇄로 생긴 격문범인 송국」, 1930.12.20. 3면 7단. 『동아일보』「김해농민야학사건 징역 10월 구형」, 1931.02.28. 2면 9단. 『조선일보』「김해여자야학 허성도 사건 공판」, 1931.02.28. 6면 7단.

1930년 12월 8일 김해여자야학교는 결국 해산을 당해 폐쇄의 수순을 밟았다. 야학교의 선생과 간부의 대부분이 야학격문사건으로 취조를 받고 있었던데다가 10년 동안 공간을 내어주던 합성학교가 돌연 교실 제공을 거부하면서 더이상 야학회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당시 사립학교취체령 하에서 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며 학교의 유지를 궁리하던 합성학교로서는 일제 당국의 압박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180여 명이 넘는 학생이 재학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성학교에서 향학열을 불태워왔던 김해여자야학회는 통곡 속에 폐쇄되었다.¹¹³⁾ 주간의 사립학교 운영과 야간의 야학회 경영으로 김해지역 조선적·민족적 민간교육의 중심지로 기능했던 합성학교는 이제 사립합성보통학교로의 전환을 통해 합성학교를 유지하는 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5. 맺음말

일제는 통감부 시기부터 조선의 교육체제를 식민지 교육체제로 재편하고자 시도하였다. 1906년 「보통학교령」, 「고등학교령」, 「사범학교령」, 「외국어학교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하였고 1908년에는 「사립학교령」을 만들었으며 조선의 완전히 병합한 1911년에는 「제1차 조선교육령」과 「사립학교규칙」도 제정하였다. 1915년 「개정 사립학교규칙」으로 교과과정과 교원 자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일제는 이로써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가시화할 수 있었다. 1922년에는 「제2차 조선교육령」을, 1929년에는 조선총독부령 제3호로 공포된 소위 「사립학교취체령」을,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일제는 식민지 교육

113) 『동아일보』 「사제가 1실에서 통곡 비창한 해산 선언」, 1930.12.11. 3면 1단.

통제를 더욱 강화해나갔다. 식민지 교육 체계 밖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립 각종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지역민을 위한 조선적·민족적 교육을 수행하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의 역할을 했으므로 일제 당국의 입장에서 더욱 관리하고 규제해야 할 대상이었다.

김해 지역의 중심지인 김해읍에 위치했던 사립합성학교는 1908년 설립되었다. 사립 각종학교로 1920년까지 명맥을 이어오던 합성학교가 경영난을 이유로 폐교 위기에 몰리자 김해지역의 사회단체였던 김해청년회가 합성학교를 인수, 경영하게 되었다. 김해지역 민간교육기관의 필요성에 공감한 지역의 많은 인사들의 노력과 기부를 통해 든든한 재정을 확보한 합성학교는 사회적·제도적인 사립학교 차별 대우 및 규제에서 나고자 1924년부터 재단법인 설립을 시도하였다. 1926년부터 1년 여 간 이어진 김해교육분규사건으로 진통을 겪었던 합성학교는 1928년 재단법인 인가신청을 했으며 1931년에 이르러서야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재단법인 설립을 시도한지 8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곧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 재정난에 부딪힌 합성학교는 1938년 4월 폐교의 수순을 밟았다.

일제시기 사립 각종학교로 김해지역 조선인 교육을 담당했던 합성학교는 김해지역의 근대적 교육 경험과 교육 관행을 지역민에게 내재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선적·민족적·사상적 교육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교육기관이었다. 지역사회의 재정적 지원과 지역민들의 적극적 참여 및 관심을 통해 합성학교는 지역사회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역의 교육공간이자 지역 여론 형성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지역사회단체가 활동할 장소를 제공하고, 해당 사회단체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통해 실현되었다. 또한 수많은 강연회 및 강습회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을 계몽하고 상식과 교양을 함양시키는데 일조함으로써 민간교육기관이라는 역할에도 충실하였다. 지역민의 문화적 계몽 및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해 문화·체육 행사도 다채롭게 실시하였다. 합성학교라는 공간을 활용한 여

러 문화·체육행사에 지역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노력하였으며 단순히 계몽을 ‘당하는’ 입장이 아닌 조선적·민족적·지역적인 교육을 요구하는 행위의 주체로서 존재하였다. 또한 야학회나 이재민의 수용에 공간을 제공하여 때로는 지역민의 교육열을 포섭하는 공간으로, 때로는 지역민을 구제하는 공간으로 작동하였다.

지역사회 깊숙이 위치하여 지역민들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해나갔던 합성학교는 사회적 변화와 일제 당국의 압박 속에서 동요하였다. 지역사회의 충돌과 균열을 가져왔던 김해형평사사건이 촉발된 장소로 고난을 겪었고 지역의 사립교육을 식민지 교육 체계에 포섭하여 규제하려는 일제의 의도 아래 폐교의 위기가 닥쳤다.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여파로 민족적 열기가 드높았던 1930년에는 조선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만세시위가 계획되고 실행되는 민족적 공간으로 작동하며 지역의 항일 감정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곧 일제 당국에게는 견제하고 단속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야학회에 공간을 내어주며 민중적 교육이 발현되는 공간이었던 합성학교가 당국의 압박과 배제 속에서 자기 교육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더 이상 제도 밖의 교육열을 포섭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변화되어 나갔다.

이렇듯 합성학교의 설립과 변천 과정,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작업을 통해 합성학교로 대표되는 지역의 사립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했고, 변화해나갔으며, 나아가 지역사회를 재편해나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일제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율적 공간을 확보한 채 조선적·민족적 교육을 해나가는 사립각종학교를 규제하고 체제 내로 포섭하여 주도권을 잡고자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여러 행위 주체들은 이러한 일제의 압력 속에서도 수동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교육공간을 매개로 식민지 권력에 대항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존재했으며 지역사회 내·식민사회 내의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화합하고, 때로는 대

립·갈등하면서 사회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 교육과 그 공간은 주지했던대로 일제의 많은 탄압을 받아 주변화되거나 식민지 교육체제 내로 포섭되어 갔지만 그 속에서도 조선인 주도의 생명력 있는 교육행위는 지속되어 나가고 있었다.

근대 학교, 특히 사립각종학교의 경우 자료의 부족이 연구의 큰 걸림돌이 된다. 실제 사립각종학교 연구가 신문 등의 자료를 근거로 모자이크식 복원을 통해 당시의 실태를 그려내는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점이 지적된 바 있다.¹¹⁴⁾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자료를 신문 등의 2차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의 한계만을 탓하며 근대교육의 실상을 밝히는 일에 손을 놓기보다는 접근 가능한 신문 자료들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교육 실태와 지역사회의 교육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교육을 단편적으로나마 해명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또한 일제시기를 통틀어 계속 감소해나갔던 사립각종학교라는 교육 공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립합성학교만을 다루고 있는 연구가 없다는 점도 본 연구가 가지는 하나의 의의이다. 향후 근대 교육과 관련한 자료의 적극적 발굴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114)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11쪽. 『조선일보』「김해합성교 보교로 승격」, 1931.03.28. 5면 4단. 『조선일보』「교육계 현상을 들어 유지들에게 호소」, 1936.12.22. 3면 1단.

| 참고문헌 |

1. 사료(1차 자료)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09.
경상남도청, 『경상남도안내』, 1914.
朝鮮總督府慶尙南道, 『慶尙南道 道勢要覽 : 大正2年』, 1913년.
慶尙南道廳, 『道勢一班 : 大正11年度』, 1922.
『조선일보』 『경남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신문』 『시대일보』 『중외일보』, 『동광』

2. 논저(논문/ 단행본)

이병태, 『김해지리지』 김해문화원, 1991.
강명숙, 『사립학교의 기원』, 학이시습, 2015.

강명숙,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과 학제 개편」, 『한국교육사학』 제31권 제1호, 2009,
_____, 「일제시대 교육사 연구의 동향과 쟁점」, 『한국교육사학』 Vol.28 No.1, 2006.
_____, 「1910년대 사립보통학교의 성격 연구」, 『한국교육사학』 33-2, 2011.
장규식·박현옥, 「제2차 조선교육령기 사립 중등학교의 정규학교 승격운동과 식민지 근대의 학교공간」, 『중앙사론』 32집, 2010.
김성준, 「경남 밀양 근대교육의 요람 정진학교 연구」, 『국사관논총』 23, 1991.
김형목, 「사립흥화학교(1898~1911)의 근대교육사상 위치」, 1998.
_____, 「한말 충북지방의 사립학교 설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3, 2002.
_____, 「을사늑약 이전 경기지방 사립학교의 성격」, 『중앙사론』 26, 2007.
김성학, 「한말 강화지역 사립보통학교의 등장과 성장」, 『한국교육사학』 36권 3호, 2013.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박철휘, 『식민지기 한국 중등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김경미, 「일제하 사립중등학교의 위계적 배치」, 『한국교육사학』 26-2, 2004.
송준식, 「한말 경남지역 근대교육의 보급과 확산」, 『교육사상연구』 27-3, 2013,
김 승, 「한말·일제하 김해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 2014.
송준식, 「1920년대 김해지역 청년단체의 교육활동」, 『교육사상연구』 31-4, 2017.
지호원, 「일제하 김해 지방의 민중 교육」, 『교육사상연구』 4, 1995.

| Abstract |

Gimhae Hapseong Private School and its Intera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o, Naeun

Gimhae Hapseong Private School, founded as a modern miscellaneous school in 1908, was at a risk of being closed down due to financial difficulty in 1920 when Gimhae Youth Association took over its running. After securing finance thanks to the local community which sympathized well with necessity of private local educational institution, Hapseong School aimed to be transformed as an endowed school, in order to not be subjected to social and systemic regulations by colonial authority on private school from 1924. Even though the school succeeded, after a series of difficulties, in being authorized as an endowed school in 1931, financial troubles caused by social and economic change of the time forced closing down of the school in April 1938.

Hapseong School took charge of education of Joseon people in Gimhae area until its closure. That is, it not only internalized modern education to the local residents but also guaranteed autonomy in Joseon nationalistic education of the region. Moreover, it functioned as a forum for regional education as well as formation of public opinion, through which local residents could act as principle agents requiring Joseon nationalistic and regional education, not being limited as an object to be 'modernized'. In short, Hapseong School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ccommodating

a diversity of conflicts in the local community, thereby reinforcing anti-Japanese sentiment under the social change and severe control of the colonial government.

The colonial government attempted to take control of and institutionalize private miscellaneous schools which carried out Joseon nationalistic education with autonomous space in the local community. However, main local actors involved in private schools held a solitary fort against the colonial power through the medium of educational space. It is true that education for Joseon people in the colonial period was constantly marginalized and embraced into the colonial one. Nevertheless, educational practices led by Joseon people were still alive and were continued even under the Japanese oppression.

Key Words: private miscellaneous school, Gimhae, Hapseong Private School, Gimhae Youth Association, local community

· 논문투고일: 2022년 3월 27일 · 심사완료일: 2022년 4월 15일 · 게재결정일: 2022년 4월 19일
